

Connect 360 성경공부

놀라운 지혜

역대상·역대하 공부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인도자 지침서>

케빈 해리스 (Kevin Harris) / 크레이그 웨스트 (Craig West)
마이클 이반스 주니어 (Michael Evans Jr) / 비비안 콘라드 (Vivian Conrad)
벤 심슨 (Ben Simpson) / 에드 조던 (Ed Jordan)
척 가트맨 (Chuck Gartman)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놀라운 지혜

판권소유 © : 20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NECT 360 ALL THE BIBLE FOR ALL OF LIFE® 에 대한 이 한국어 교재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성경
, 1998 년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Leadership Team
총책임자,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David Hardage
부책임자,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Craig Christina
부장, Great Commission Team: Delvin Atchison
출판사, BaptistWay Press®: Bob Billups
영업부장: Stan Granberry
출판부장: Nancy Feaster

한국어 집필위원

순전한 기쁨
(1 과 ~12 과) 김훈희 (전 코발리스 한인침례교회 목사)
(13 과 ~ 부활절)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목사)
총편집 담당: 최승오 (중앙침례교회 목사)

초판 : 2021 년 3 월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케빈 헤리스는 제 1 과에서 4 과까지 성경 주해를 집필했다. 케빈은 텍사스주 리오 그란데 벨리 도시에 사는 이중언어 목사이다. 그는 텍사스 브론스빌에 있는 벨리 메디컬 센터에서 군종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로스 프레스노스 제일 침례 교회의 목사로 리오 그란데 침례교 지방회의 리더쉽으로 섬겼다. 그는 교회와 선교에 지난 40 년 동안 자원하여 섬겼고, 지난 20 년간 일하던 과학 기술 분야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옮겨왔다. 그는 현재 스타크 대학교와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다.

크래그 웨스트는 학습 계획 제 1 과에서 4 과까지 집필했다. 웨스트 박사는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고, 뉴 올리언스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루이지애나주 웨스트 몬로에 정착하여 그의 아내와 두 명의 자녀와 살고 있다. 크래그는 음악 사역자와 몬로 오케스트라 심포니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다.

마이클 이반스 주니어는 제 5 과에서 7 과까지 성경 주해를 집필했다. 마이클은 텍사스주 맨스필드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마이클 이반 시니어가 담임 목사로 섬기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마이클은 모하위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마이클은 프린스턴 대학원 재학 중에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그의 아내 제드 이반을 만났다. 이반 목사는 현재 텍사스 뱀티스트 크리스천 라이프 커미션에서 공중 정책부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다.

비비언 콘라드는 제 5 과에서 10 과까지 학습 계획을 집필했다. 그는 20 년 동안 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섬기다가 남편 존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텍사스주 웨더포드에서 음악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비비언은 웨더포드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M.A.Th.)과 달라스 뱀티스트 대학교(B.A. 교육학)를 졸업했다. 그녀와 존은 다섯 자녀의 부모로 열 다섯 번째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

벤 심슨은 제 8 과에서 10 과까지 성경 주해를 집필했다. 벤은 그가 해외 영성 형성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W. Truett 신학대학원에서 영성 형성 부감독자로 섬기고 있다. 그는 Truett 영성 훈련 감독자를 돕고 있고, 영성 감독자로 섬기고 있다. 벤은 베일러 대학교에서 B.A. 학위를 받았고, 델라스 신학 대학원에서 M.A.C.E. 학위를 받았고, 캔자스 대학교에서 종교학 M.A.을 받았다. 그는 침례교 전통에 따라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과 대학생 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에드 조르단은 제 11 과에서 13 과 성경 주해와 부활절 과를 집필했다. 조르단 박사는 골든게이트 신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52 과의 교회 개척을 위한 커리큘럼과 두개의 해석학 책을 집필했다. 그는 Idaho State Journal 과 Gloucester Gazette Journal 에서 수상을 하였고, Danville Register 와 Bee's Southern Virginia Living Magazine 과 Baptist General association(BGAV.org)에서 수상하였다. 그와 그의 아내는 버지니아주 기원에 위치한 기원 아일랜드 침례 교회에서 섬기며 살고 있다.

척 가틴은 학습 계획 제 11 과에서 13 과와 부활절 과를 집필했다. 척은 텍사스주 브론스우드에서 하워드 페인 대학교에서 크리스천 스터디 조교수와 사역 안내 감독자로 섬기고 있다. 척은 다양한 지방 교회들과 대학교와 대학원에 교단 일로 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을 지방에 있는 대학교 사역의 전문가로 구별하고, 다른 많은 영역의 교회 리더쉽으로 구별하고 있다. 척과 그의 아내 코니는 세 명의 장성한 딸이 있다.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당신이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짧은 요약물을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당신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 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 만일 당신의 반원들이 모두 이메일이 있다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이메일로 보내라.
3.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4. 학습공과와 내용들을 다 공부한 뒤에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교사를 위한 제안을 사용해서 당신의 반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취하고 응용하라.
5. 영어로 된 수업 보조용 프린트물들은 www.baptistwaypress.org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그외 영어로 된 자료들에 대한 무료다운로드나 도서 구입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를 하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이메일을 하라.
7. 더 필요한 교사연구용 준비자료들은 1-866-249-1799 로 전화를 해서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전체 13 과 자료가 1 인용 5 불이고 5 명을 1 그룹으로 해서 20 불이다.
8. Baptist Standard 는 1 년 구독료 10 불이다. 온라인(www.baptiststandard.com) 으로 주문하거나 214-630-4571 로 전화해서 할 수 있다.

☞ 영어로 된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은 amazon.com/kindle 에서 킨들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옆로드 중입니다).

☞ 영어로 된 오디오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교재들로 일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866-249-1799 로 전화하시거나 baptistway@texasbaptists.org 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 및 편집 원칙

BaptistWay 출판사 책임자와의 합의하에 번역 및 편집은 필요에 따라 때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의역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같은 성경적 교훈 아래서 고쳐 쓰거나 생략했음을 밝혀 둡니다. 이 원칙은 이전의 교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놀라운 지혜

역대상, 역대하 공부

페이지

인도자 지침서 저자들	3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4

수업일

제 1 과 _____	하나님께서 No 라고 하실 때	9
	역대상 28:1-10	
제 2 과 _____	햇불 전달하기	16
	역대상 28:11-21	
제 3 과 _____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23
	역대상 29:1-19	
제 4 과 _____	지혜를 구하는 기도.....	30
	역대하 1:1-13	
제 5 과 _____	건축을 위한 준비	36
	역대하 2:1-12	
제 6 과 _____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	42
	역대하 3:1-17	
제 7 과 _____	찬양이 하는 놀라운 일.....	48
	역대하 5:1-14	
제 8 과 _____	이뤄지지 않은 꿈들의 복.....	55
	역대하 6:1-11	
제 9 과 _____	부흥의 열쇠들	62
	역대하 6:12-42	
제 10 과 _____	불 붙은 교회	69
	역대하 7:1-10	
제 11 과 _____	우리의 유일한 소망.....	76
	역대하 7:11-22	
제 12 과 _____	어려운 질문들	83

	역대하 9:1-12	
제 13 과 _____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89
	역대하 9:13-31-23	
부 활 절 _____	다시 길 위에 서	98
	누가복음 24:13-15	

제 1 과	하나님께서 'NO' 라고 하실 때
핵심본문 역대상 28:1-10 배경 욥 38:1-8	학습주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 탐구 질문 하나님께서 “NO”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학습 목표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무한하게 지혜롭다는 것을 이해한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풍부하고 섬세하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역대기서는 역사의 특별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신학자들에게 보통 “연대기 작가”라고 불리는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과 같은 서기관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젊은 양치기 소년 다윗을 그다지 크지 않은 존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삼상 16:1-13). 하지만 그는 왕좌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하는 왕을 살아남기 위해 폐지해야 했다. 다윗은 왕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삼하 5:6-10) 수도로 삼고, 남 왕국과 북 왕국을 연합하여 다스려야 했다.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장소로 섬기기 위하여 언약궤의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과 맞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은 다윗의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다(역대상 22). 성경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집중하시지만, 항상 우리의 기대에 맞추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예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욥기 38 장 1 절에서 8 절을 보면 욥이 그의 인생에서 당하는 깊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읽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리를 전능한 창조주로 세우셨고, 욕을 그의 자리에 두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하시도록 시도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잃을 것이다. 사실 솔로몬의 지혜(잠 16:3)는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신뢰 위에 두면 그것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우리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것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의 중심이 맞추어 있어야 한다.

본문 해석

다윗이 왕의 관원들을 소집하다(역대상 28:1)

솔로몬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부터 보기 시작한다. 역대상 28 장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마지막 연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에 여러 장을 보면 우리는 22 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개인적인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상 23 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관을 쓴 것이 묘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어서 긴 왕의 관원들의 리스트와 왕의 법정의 의무들이 나열되어 있다. 역대서의 이같이 긴 리스트는 27 장까지 연장되어 28 장 다윗의 마지막 연설에서 최고점을 이루는데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국에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임명을 받았고, 그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나열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관원을 불러서 소집한 것이다. 부름을 받은 리스트에 있었던 남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통치를 폐지하는데 협조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연합된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 다윗이 왕으로 왕관을 쓸 때 왕의 관원들은 세워졌고, 다윗의 통치를 전원이 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에도 새로운 왕에 대한 전원의 찬성을 얻기 위해 왕의 모든 관원을 집합한 것이다.

다윗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 알리다(28:2-8)

28:2-3. 2 절은 왕의 관원들을 소집하여 다윗의 연설로 시작한다. 이 연설은 22 장에 다윗이 솔로몬과 개인적인 대화와 흡사하다. 두 개의 연설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연설은 전에 연설보다 공적인 언어를 더 사용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항상 지적했다. 그는 목표를 두고 일했는데 건축 계획에 필요한 많은 건축 재료들을 모았다(역대상 22). 그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놀란 만한 일이었다. 그는 자기 의도와 준비를 관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연설을 시작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업적을 성취할 자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많은 전쟁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익숙한 자가 그분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28:4. 4 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그중에 다윗의 집안을 택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있다(창 49:8-12; 역대상 17:23,27). 현시대 독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의 연설에서 다윗이 부풀리고 교만하게 연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회중들에게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택하여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준비한 것이기도 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다윗이 연설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그의 상속을 연장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28:5-8. 다윗은 그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아니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소식을 알리기를 원한다.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할 자로 임명하고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명확한 사실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평화스럽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왕의 자리를 놓고 어떤 리더들의 그룹은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하고, 다른 리더 그룹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논쟁이 있었다(열상 2:15; 열상 1:7-8). 다윗은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왕의 관원들을 포함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구심도 생기지 않게 하였다. 다윗은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선택임을 밝힌 것이다.

6 절과 7 절은 계속해서 다윗의 언약 언어를 강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언약의 약속이 계속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간구하였다.

일반 독자들은 8 절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동사인 “보다”와 “구하다”는 히브리 원서에 복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수형의 형태는 다윗이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리더십이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의로움을

지키면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 제사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동일한 주제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한을 이양하다(28:9-10)

9 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왕으로 권한을 이양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주었듯이 솔로몬에게 전반적인 지시 사항의 전부를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자제했다. 솔로몬의 권한은 하나님을 그냥 따른 것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전체적인 초점은 성전의 건축을 포함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

의미에 집중하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전쟁의 사람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다. 이것과 이유는 다르지만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아주 다르지는 않다(민 20:12).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실패하였다.

우리는 다윗이나 모세가 그들을 제외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욥이 욥기서 30 장에서 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욥기 38 장의 욥의 말을 그의 결백에 대한 정당한 변호로 비교하고 있다. 욥은 그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에게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제시하시기를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님께서 38 장에서 욥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케이스는 정당하지 않다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설명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O”라도 대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군사들 사이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이 있다 “전쟁 도중에 명령에 질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좋은 군사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를 구한다. 대부분의 시간에 보통 군사들은 큰 그림에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 크리스천인 우리도 일반 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다. 그는 전쟁의 구석구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분은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 장 28 절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그분은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칠판이나 종이에 "YES"와 "NO"를 쓴다. 반원들이 도착하면 중요한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라고 설명한다(결혼식 청혼, 직장 찾기, 자녀의 질문에 대한 부모의 답변, 등등....)
2. 반원들에게 오늘 공부는 하나님께 동일한 대답을 받았던 남자의 예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가능한 결과를 만날 때 우리에게 격려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3.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인도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한 사람이 역대하 28 장 1 절에서 5 절까지 읽도록 하라. 반원들이 아래에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인도하라.
 - 다윗은 왜 이런 대단한 그룹을 한 곳으로 부르는 것이 필요했는가?
 - 1 절에 명단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 당신은 다윗의 연설에 감정적인 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겠는가? 왜 그런 대답을 택했는가?
 - 다윗은 어떤 긍정적인 것을 언급했는가? 부정적인 것은?
5. 반원들로 아래에 질문들을 토론하도록 인도하라.

-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NO'라고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선택한 것(28:5)이 어떻게 다윗의 확신 근거가 됐는가?
-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히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정보를 이사야 55 장 8 절에서 11 절을 보면서 비교해보라).

6. 한 사람이 역대상 28 장 6 절에서 10 절까지 읽게 하고 아래의 질문들에 토론하도록 하라.

- 7 절에 언급된 약속된 왕국은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무엇이 이런 약속을 따르기 어렵게 만드는가?
- 1 에서 10 까지 비율에서 1 은 "매우 어려움" 10 은 "매우 쉬움"으로 당신은 7 절에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을 어디에 놓는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가?
- 8 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도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9 절에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도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이것보다 우리의 헌신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가?

7. 반원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위임한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하나가 중요한지 생각하도록 한다.

-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 "기쁜 뜻으로 섬기고"
- "그를 찾으며"
- "삼갈지어다"

8. 반원들에게 대답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 당신은 위의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 오늘 배운 구절을 위의 말에 비치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분을 신뢰하기 쉽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렵게 만드는가?

9. 반원들에게 “발견할 질문”을 생각하도록 인도하라. 상대의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때 당신의 감정의 예들을 들어보라.

- 어떤 면에서 감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대답을 받았을 때 어떤 증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사용했는가?
- 하나님의 지혜 안에 동일한 증거나 격려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가?

기도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대답을 들을 때도 그분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더욱 자발적으로 신뢰하도록 구하자.

[끝]

제 2 과	햇볕 전달하기
핵심본문 역대상 28:11-21 배경 역대상 13	학습주제 고통은 우리의 삶에 일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탐구 질문 나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질 때 어떻게 나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학습 목표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언약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다(삼상 4). 여러 가지 재앙을 겪은 블레셋은 언약궤를 유대에 돌려줬다(삼상 5). 언약궤는 기랴여아림에서 20 년을 머물러 있었다(삼상 6 장). 다윗은 왕으로서 처음 실행한 일로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시도했다(역대상 13 장). 하지만 언약궤를 정해진 방법대로 다루지 않은 결과로 한 명의 남자가 죽고 잠시동안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역대상 16 장).

다윗이 한가지 배운 교훈은 그가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다 놓는 좋은 일을 할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루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교훈을 배웠다. 다윗은 그의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역대상 28:1-10),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요한 계획을 마치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기간에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잘못된 불륜으로 실패를 경험했다. 밋사바와 저지른 죄는(삼하 11-12 장) 왕으로 그의 통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전에 그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만을 경험했다. 이 불륜 후에 다윗의 인생에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다윗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로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역사는 그를 이스라엘의 경건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

역대 기자는 그의 시대에 “다윗이즘”을 사용하여 다윗의 사건들 속에서 다윗의 인물됨을 확대하고 축제하였다. 역대기자는 사울에 관해서 적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다윗에 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솔로몬을 계속적으로 다윗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흠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하였다. 역대기서의 기록들은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기록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역대기서에 대한 현대의 학식은 다윗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하여 흥미를 덜어내었고 대신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여주었다.

본문 해석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의 계획을 주었다(28:11-19)

28:11-18. 하나님께서 장엄한 성전 건축을 계획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인생의 시간을 많이 보낸 다윗에게 성전의 계획들을 주셨다. 역대서 기자는 회막의 만남 장소를 모세에게 보여 주신 것과 같은 계획의 유형으로 말하고 있다.

독자는 성전 건물의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구들과 장식들까지 여기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성전 언어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장의 언어로 쓰였고(출 39:32-43)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이해했고 이것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그의 인생의 작업으로 나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의 기쁨을 발견했다. 다윗은 제사장들의 사역과 예배에 불릴 노래들과 음악 악기들의 디자인과 성전 안에서 사용할 기구 등 성전의 모든 면을 생각에 집어넣었다. 그는 또한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그의 많은 개인적인 보물을 구별하여 떼어 놓았다(역대상 29:2-5).

다윗이 12 절에 다윗이 모든 것에 계획을 전하면서 “그가 생각한”(NASB1995) 또는 “영감으로 받은”(KJV)의 언어를 사용했다. 두 가지 번역본은 기술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신학자들 간에 "ruach"(히브리어)가 성전을 향한 다윗의 소원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한 것인지 이견이 있다.

28:19. 12 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19 절을 조사하면 명확해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번역본들이 이 구절에 대하여 혼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다윗이 썼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서 기록했는지 소개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다윗에게 감동으로 주셨고, 다윗은 그 계획을 차례대로 적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디모데후서 3 장 16 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감을 주신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것은 "ruach"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호흡" 또는 "영"의 단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윗의 솔로몬에게 지시함(28:20-21)

28:20-21.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지시는 리더들에게 주는 전통적인 구약의 격려였다. 우리는 이 지시가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다른 대화들보다 공식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왕의 직무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시의 시기는 히브리 나라의 리더인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과도기의 시대까지 내려간다. 다윗에게서 솔로몬까지 과도기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까지 과도기와 같지 않다. 모세는 히브리 나라를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후에도 계속 그들을 인도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이양받을 것이다(신 31 장;수 1 장).

다윗은 평안함이 없는 시기에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평안의 시간으로 인도했다. 그는 노령의 나이까지 살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긴 평화와 그 지역의 안정 시간으로 들어가게 할 그의 후계자를 소개했다.

의미에 집중하기

오늘날 이스라엘에 열심 있는 유대인 그룹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의 회복과 희생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전의 도구와 장식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박물관에 포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대하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거기에는 훈련을 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구체적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거기에는 레위기의 법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정결한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축들의 분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성전 전문학교의 제사장들과 열심있는 유대인들은 나로 하여금 다윗을 생각나게 만든다. 그들은 성전의 재건축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작은 부분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준비하고 있다. 반석의 둥근 모양의 지붕과 알 아콰(Al-Aqar) 사원은 현재 거룩한 성전이 서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슬람의 회당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지만 지금은 랍비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성전의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다시 문이 열리는 날에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의 성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흥미롭게 배울 수가 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지만, 자신의 성인의 날들을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표를 완성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 사역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 비슷한 일들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수용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알려져 있다(행 13:22). 오늘날 독자는 죄가 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그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었고, 싸움에서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시편을 보는 사람은 다윗의 별거벗은 인생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는 자기 죄를 알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회개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그의 자세와 우리를 연관 지을 수가 있을까?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도움과 소망을 위하여 주안에서 계속하여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주안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크리스천 여정에서 배워야 할 것은 시련들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칠판이나 큰 종이에 이 문장을 적으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하려고 계획하는 것이다.” 반원들이 도착하면 이 문장을 생각하고 그것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의견을 나누도록 인도한다.
2. 반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공격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라. 오늘의 교훈은 배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힘을 받을 기회를 얻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반원 중에 오늘의 공과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반원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한 사람이 역대상 28 장 11 절에서 18 절까지 읽도록 하고, 다윗이 나열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목록을 발표하도록 하라(춧대; 진설병 상; 향단; 그릇들; 등등....). 만약에 반원 중에 준비가 안 된다면 당신이 준비하고 반원들에게 아래의 질문들을 하라.
 - 당신은 왜 성전을 그렇게 정교하고 정성 들여 만들어야 했다고 보는가?
 - 어떻게 모든 물건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 누가 모든 일과 가구들의 설비를 지불할 것인가?
5. 반원들이 아래의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인도하라.
 - 1 에서 10 의 수준에서(1 은 “매우 흥분함” 10 은 “매우 침착함”)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말할 때 감정의 상태는 어느 수준이었나?

- 왜 그렇게 답을 했는가?
 - 같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당신의 감정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가?
 - 왜 그렇게 답을 했는가?
6. 역대상 28 장 19 절을 읽고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다윗이 사용한 환유적인 설명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었는지 설명하라.
7. 우리는 다윗과 같이 쓰여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말 3:10; 눅 11:28; 신 15:10 등등..).
8. 역대상 28 장 20 절에서 21 절을 읽고 반원들에게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인도한다.
- * 다윗은 솔로몬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했는가?
 - *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을 더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했는가? 아니면 똑같이 집중했는가?
 -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는가? 빈원 중에 여호수아 1 장 6 절과 7 절을 읽도록 하라.
 - 이런 말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들과 어떻게 비슷한가? 그것들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적용 격려

9. 반원들로 20 절에 다윗의 설명을 사용하여 칠판이나 빈 종이에 아래의 질문에 답을 적도록 하라.
- 내가 인생 상황에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승리가 가능한 것은 내가 _____.
 - 나의 감정이 고갈될 때 다윗은 나에게 _____ 말했을 것이다.
 -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격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_____.(이 과제는 www.baptistwaypress.org 에 "Teaching Resource Items"에 준비되어 있다.)

기도를 마치면서 반원들이 실망이 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다윗의 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하자. [끝]

제 3 과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핵심본문 역대상 29:1-19 배경 역대하 9:6-11	학습주제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 탐구 질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학습 목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나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무엘서나 역대서 중에 어떤 책을 참고로 삼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은 다윗의 17 명 혹은 19 명의 아들 중에 열 번째 아들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고,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 왕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 통일된 나라가 되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파 출신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의 도시로 만들었고, 그는 유다와 벤자민 지파를 통일하여 다른 지파들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도시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언약궐을 기드온으로 가져옴으로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어냈다. 성전의 건축은 다윗의 가장 큰 성취였다. 그는 언약궐이 안식할 장소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다. 다윗은 성전 회막에서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 유량하는 지파에서 견고한 나라로 전향하고 도시 국가와 더불어 집이라 불릴 수 있는 영원한 장소를 건축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솔로몬에게 다윗이 전해준 유산이었다.

다윗은 그의 시간에 고대 동쪽에 걸쳐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왕으로 일했다. 이 평화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전 지역의 상업과 무역의 교차로로 올려놓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오랜 평화는 솔로몬의 행정적인 장점과 함께 그 지역 전체에 솔로몬의

영향력의 연료와 같이 사용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광대해져서 시바 여왕의 방문을 보장할 정도가 되었다(역하 9:1-12). 그의 부와 지혜의 영향력은 시바 여왕의 존경과 칭찬을 얻어냈다.

솔로몬의 엄청난 부 외에도 전설적인 지혜자로 알려지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솔로몬 지혜의 선물 기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열왕기상 3 장 4 절에서 15 절에 찾을 수가 있다.

본문 해석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그의 예물을 드렸다(2:1-5)

29:1. 솔로몬은 다윗 왕의 왕좌를 다투는 자가 아니었다.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열상 1:1-10). 사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년에 자신이 왕으로 행세를 했다. 거기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이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온다면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다윗은 경험이 적고 젊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모든 회중 앞에서 발표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전”의 히브리어인 “birah”는 여기에 성전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왕궁”이나 “왕의 건물”에 좀 더 가까웠다. 여기서 이것이 사용된 것은 아마도 포로 귀환 이후에 본서가 쓰였거나 아니면 성전을 하나님의 왕궁이나 안식처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29:2-5. 2 절은 다윗이 드린 선물의 역사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알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귀중한 보석의 번역은 약간 분명치 않은 것이었다. 특별히 마노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돌 등은 번역가를 혼돈하게 만들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보물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을 계속했다. 그가 드린 양은 엄청난 양이었고 상질의 것으로 알려졌다. 다윗은 그의 연설에서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드린 것을 통하여 그들 자신도 구별하여 드리라고 도전했다.

히브리어 “말레”는 “구별하여 드린다”로 번역되었는데 “손에 채운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안수를 받은 제사장들과 보통 연관된 단어였다. 이런 사용은 매우 드물고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다윗은 회중들에게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 제사장의 안수를 지적하고 이미지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 장 6 절을 가르치며 깊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헌물은 모세가 성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요구하던 헌물들을 생각나게 한다(출 25:1-9). 역대기자는 족장이었던 모세의 중요성을 나라가 기억하게 하고 일깨우려 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다윗을 모세와 동일하게 만드는 주제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 헌물을 어떤 이유로든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말하는 “자원 헌물”은 명령에 의해서 드리거나 압력으로 한 것도 아니라 출애굽기 25 장 2 절에 서로의 마음에서 나온 선물을 요구한 것이다.

회중이 성전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참여하다(29:6-9)

29:6-9. 사람들은 성전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190t의 금을 드렸다. 그들은 역대기 기자의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동전이었던 다릭의 금을 드렸다. 히브리어 단어 “아다콘”은 NASB(다른 곳에서는 드라크마)에 “다릭”으로 번역되어 시대에 뒤진 표현이지만 독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이고,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전체 은은 375 달란트였고, 놋은 675t 이었고, 철은 3,740t 이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9 절에 사람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완전하게 드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다윗의 기도(29:10-19)

29:10-19. 다윗은 그의 연설을 기도로 마무리했다. 기도는 주 아웨를 위한 찬양과 축복으로 시작하여 감사 기도로 변하고(19:13), 마지막으로 기원의 기도가 포함되었다(29:17-10).

10 절의 히브리어 “바락”은 “축복하다”로 번역되어 주님을 향한 다윗의 행동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우리를 향한 행동을 가르친다. 하지만 어떤 번역가들은 이 단어는 “축복하다” 대신에 “찬양하다”로 번역한다. 느헤미야 8 장 6 절을 보면 에스라가 주님을 축복한다. 시편 145 장 21 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이름을 축복한다. 어떤 신학자들이 지적하기를 그것은 매우 드물고 어느 경우는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무였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찬양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특히 시편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회중을 예배로 부르는 형태로 주님을 축복하는 데 집중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11 절과 12 절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식의 문구를 반복하는 형태로 나중 원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 첨부가 되었다(마 6:13). 다윗의 이 찬양의 문구는 많은 방법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이었다.

13 절과 14 절은 감사의 주재를 소개하고, 모든 헌물은 하나님에게 온 선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모든 선물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다윗의 “내가 누구이기에?” 질문은 겸손한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와서 자원하여 드리는 선물로 다시 그분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15 절은 겸손한 자세가 계속되고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제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16 절에는 주께서 주신 풍성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원천이 되심을 지적한다. 17 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자는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 드려야 함을 구해야 한다. 18 절과 19 절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원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기회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회이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러 해에 걸친 견고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기회였다.

의미에 집중하기

마태복음 6 장 21 절에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물로 여긴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은행 거래 기록을 보면 그의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구별할 수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에 당신이 다윗 왕의 소비의 내역을 본다면 당신은 그의 우선순위는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의 개인적인 보물까지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었다.

만약 마태복음 6 장 21 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당신의 힘을 집중하는 곳에 당신의 보물을 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모든 종류의 것에 집중한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최근 모델의 자동차를 마음을 고정할 것이고, 아니면 좋은 집, 아니면 좋은 목적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의 것들보다 아니면 주님의 목적보다 더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못된 것들에 소비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좋은 일에 관대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말씀은 이런 후 한 드림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딤후 6:17-19).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방법을 발견한다. 내가 아는 가족 중에 직장에서 주는 휴가로 가족 휴가를 떠나는 대신 선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세계를 보며,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다른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집을 구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내가 아는 많은 목사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다. 목사로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예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취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하여 명확하게 보이는 훌륭한 척도가 될 것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칠판이나 큰 종이에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림을 준비하라. 반원들이 도착하면 두 아이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서로가 “내꺼야!”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 장면을 경험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2. 반원들에게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이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질문하라. 오늘의 공부는 우리 소유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를 배운다는 것을 설명하라. 반원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3. 오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역대상 29 장 1 절에서 9 절까지 읽으라. 반원들에게 아래의 질문에 답하도록 지도하라.
 - 다윗이 성전 건축의 계획을 위해서 드리는 그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증거를 찾아보라.

- 당신은 다윗의 케이스와 같이 리더의 행동을 따르기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왜 그런가?
 - 만약에 다윗과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5. 반원 중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게 하라. 반원들에게 다윗의 행동과 바울의 명령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 무엇이 비슷한가? 무엇이 다른가?
6.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으라. 반원들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인도하라.
- 당신은 다윗이 그의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당신이 소유 중에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이 직업이나 집이나 지위나 저축이나 등등....)
 -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가?
 - 15절은 어떻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수가 있는가?
7. 역대상 2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고 반원들이 아래의 질문들을 토론하도록 인도하라.
-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 왜 그것들이 중요한가?
 - 어떻게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 무엇이 다윗의 선포와 기도예 "큰 기쁨"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만들었나? (21절, 22절)
8. 칠판이나 종이에 0에서 10까지 숫자를 라인 위에 적으라. 0은 "전혀 아니다"이고 10은 "당연하다"인데 반원들에게 아래의 질문들을 조용하게 생각하며 응답하도록 도우라.
- 현재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_____.
 -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에게 교회 건축을 위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 나의 반응은 _____.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가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후하게 주는 것을 자극하신다면 나의 반응은 _____.

9. 반원들에게 그래프에 자신의 답을 적도록 한다. 0 은 "아니요" 10 은 "예" 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반원들이 반응하도록 돕는다.
10. 기도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소유에 청지기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대에 맞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끝]

제 4 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핵심본문 역대하 1:1-13 배경 열상 11:4-8	학습주제 리더십은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탐구 질문 지혜를 갖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장하는가? 학습 목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세계의 많은 문화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솔로몬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왕관을 쓴 새로운 왕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하지만 솔로몬의 요청 안에 지혜를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본문은 *코그니그노뵐* 이라 불리는데 왕의 혁신 위대함을 축제하는 주제를 가진 이집트의 문학의 스타일로 말하고 있다. *코그니그노뵐*의 이야기는 현대 세계 안에서 선전이라도 불린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왕을 잘 반영하고 독자들에게 왕의 지위를 견고하게 해준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행정적인 결정들과 광대한 지식과 그의 짧고 많은 잠언을 통해서 나타난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통치를 통해서나 성전 건축 안에 그의 왕관 같은 지혜를 통해서 많은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령님의 감독 아래에서 열왕기 책들과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대의 독자로 모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역사에 기대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다른 저자들이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른 방법들과 다른 청중들과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각 저자는 같은 이야기 안에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다.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 왕의 실수나 죄 또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충분하게 잘 반영하지 않은 것을 풀어주고 있다. 열왕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역대서의 역사서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대기 기자는 우선의 초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솔로몬 왕의 성공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바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다윗이 그 지역에 안정시킨 평화를 확장했다. 솔로몬은 이것을 사용하여 고대 동쪽 근교에 교차로를 놓고, 오랫동안 무역을 정착시켜 나라의 안정과 수익을 보장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 대한 열왕기서를 보면 그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열왕기상 11 장은 솔로몬의 통치에 마지막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많은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그는 이방 아내들의 거짓 신들에게 가서 예배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가지는 함정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신 17:14-20).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1) 말을 증가하여 군대를 강대하게 만드는 것, 2) 많은 아내와 결혼하여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에 유혹되는 것, 3) 은과 금을 쌓아서 부를 축적하는 것. 솔로몬은 이런 명령을 깨트렸다. 그는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왕국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셨다(열상 11:11-25).

본문 해석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헌물을 드렸다(1:1-6)

1 절은 솔로몬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동안 확정되지 않은 기간의 시간이 흐른 것을 가르키고 있다. 어떤 군주 정치의 권력의 과도기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의 시간을 가져온다. 군주 정치의 안정은 어떤 폭동도 잠재우고 왕위를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다. 역대기 기자는 현대 독자들이 사건의 순서 안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총정리하고 있다.

본문의 솔로몬의 기브온 방문은 열왕기상 3 장과 역대하 2 장에 나온다. 열왕기서에서는 나라의 회중이 모인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대형 모임 같은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다. 역대기 기자는 왕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시간에 온 이스라엘이 왕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왕의 대중적인 생활 안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모임을 주제를 집어넣었다.

기드온은 성전 회막의 만남의 장소가 서 있는 장소였다. 회막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천 번의 번제를 드렸다. 역대기서는 집합 모임이 기드온으로 넘어가고 열왕기상 3 장 4 절과 비교하여 엄청난 제물들을 드린 것을 기록했다. 솔로몬이 예배의 행동으로 드린 제물은 전체 모임 앞에서 드린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상징적인 예배의 행위였다. 솔로몬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은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같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다.

역대기서는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을 언급한다(출 38:1-8). 브살렐은 성전의 회막을 건축한 기능공이었다(출 38:1-8). 전통은 브살렐은 특별한 신적 선물과 기술의 재능을 받았고, 일에 착수했다고 전한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브살렐과 연결하여 성전의 회막의 건축을 말하고 있다

솔로몬이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다(1:7-13)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오셨다. 열왕기서는 꿈에 주께서 두 번 솔로몬에게 오셨다고 기록했다(열상 3:5,15). 하지만 역대기서는 밤에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기록했다. 신학자들은 누락된 것에 대하여 논의가 있지만 역대기서에 꿈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야웨(YHWH)의 사용과 엘로힘(Elohim)의 사용은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습관과 전통을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두 이름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칭하고 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솔로몬이 기도하며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을 보여준다.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어느 정도 단축되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지만 더욱이 부와 명예까지 약속해 주셨다.

히브리 단어 "*chesed*"(1:8)은 "큰 은혜"로 히브리어는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단어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다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키고 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관계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의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그의 자손과 함께하신다.

솔로몬의 말은 그가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기도는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였다.

의미에 집중하기

현대의 독자들이 이것을 읽는다면 그것이 램프 속에서 지니가 나와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가 있는 것은 솔로몬이 틀에 낀 방식대로 지혜를 구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마 7:7).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대속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알리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시하고 의심하는 태도로 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지혜롭게 우리의 기원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롬 8:28) 기도해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시편 37:4)

무엇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일이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의 선물을 받았다. 그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알고 있다. 잠언서를 잠깐 보더라도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았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조언에 따라서 조심하는 것에 실패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다윗은 그에게 안정된 왕국과 보호와 은총을 위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받았다. 솔로몬은 시작을 잘하여 오랫동안 성공을 경험했고, 대단한 부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등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방 국가의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한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의 평화가 에돔의 공격으로 즉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열왕 11:14-40).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에서 눈을 떼는 실수를 범했다. 리더십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리더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길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때로는 리더가 성공을 너무 오랫동안 누린 나머지 그 성공이 리더의 비전을 흐리게 한다. 리더는 계속적인 자기 성찰과 도덕적인 검증으로 돌아오는 것은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들이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을 기억하는 것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반이 시작하기 전에 나쁜 결정들을 내린 사람들의 사진을 보이라(영화, TV, 스포츠, 정치, 등등....). 반원들이 들어오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도록 질문하라(많고 다양한 예들을 준비하여 너무 쉬운 것을 피하라).
2. 모든 반원이 도착하면 사진들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나누도록 잠깐의 시간을 주라. 그들 모두는 오늘 교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3. 기도로 인도하며(혹은 반원 중에), 하나님께서 반원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지혜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보여 주시기를 구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역대하 1 장 1 절에서 6 절까지 읽으라. 반원들에게 아래의 질문들에 대하여 실마리를 듣도록 지도하라.
 - 당신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대답을 지지할 증거들은 무엇인가?
 - 솔로몬의 행동들은 예배에 대한 그의 관점을 가르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아니면 왜 아닌가?
 - 당신이 만약 이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솔로몬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을까? 당신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가?
5. “성경 주해”를 사용하여 반원들에게 낫 제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예배 속에서 희생의 요소의 중요성을 나누라. 이것을 이과의 학습 주제와 연관 되도록하라.
6. 역대하 1 장 7 절에서 13 절까지 읽고 반원들에게 아래의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한다.
 -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열상 3:15)

- 솔로몬의 대답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솔로몬의 요청은 요즈음 우리가 드린 기도들과 비교하여 어떤가?
- 성경 속에서 솔로몬과 비슷한 것을 구한 인물들의 이름을 알아보라(요셉(창세기), 아브라함, 침례 요한, 등등...).
- 교회가 교인들이 지혜를 기르게 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적용 격려

7. 반원들에게 반이 시작하기 전에 사진 속에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라. 반원들에게 왜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탐구 질문”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지혜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날 리더쉽에서 지혜가 가치가 있다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8.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당신에게 솔로몬에게 제시했던 것을 제시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솔로몬의 요청은 당신 미래의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9. 노트 카드(3 x5)를 반원들에게 나눠주고 위의 문장을 채우도록 하라: 나는 이런 부분에 _____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원들을 격려하여 문장을 채우고, 다음 달까지 성경 안에 보관하여 지혜를 갖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그것대로 행동했을 때만 의미있는 것임을 격려한다.
10. 기도를 마치면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지혜를 가져다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의 행동들이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도록 구하라.

[끝]

제 5 과	건축을 위한 준비
핵심본문 역대하 2:1-12 배경 열하 3:9-14	학습주제 동역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한다. 탐구 질문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학습 목표 예배에 관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역대상과 역대하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역대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처음 부분(1 장-9 장)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10 장-36 장)은 기원전 6 세기까지 유다 남방 왕국의 섬세한 역사에 관한 것이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충명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좋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셨다. 결국 솔로몬은 열왕기상(4:29-34)에서 설명한대로 그의 지혜로 넓은 곳에서 명성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와 지혜와 부를 주신 후에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힘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다.

본문 해석

성전 건축을 준비함(역대하 2:1-12)

2:1. “지금”이라는 말은 다윗 왕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중의 하나가 그가 죽은 후에 다스리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삼하 7:12-13). 다윗 왕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셨기에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그의 후계자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역대상 28 장).

다윗은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였다.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솔로몬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혼자서 건축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셔서 길을 닦아 놓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2-3. “짐을 같이 짐”, “언덕의 나라에서 채석업” 그리고 “감독하는 것” 또는 관리하는 것은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예배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 그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은 큰일이었기에 솔로몬 왕은 혼자서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솔로몬 왕은 그의 왕국 안에서 가장 좋은 일꾼들의 팀을 소집하였다. 이렇게 한 후에도 솔로몬 왕은 그와 그의 나라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도 큰 일 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두로 왕 히람에게 이 계획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4-5. 솔로몬 왕은 그의 열심 안에서 처음의 요구를 하기 전에 그가 어떤 건물을 건축하고, 왜 건축을 하려는지 자세한 설명을 했다.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솔로몬은 히람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한 처소를 건축하는 도움을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솔로몬 왕은 특별히 성전 안에서 드릴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나열하고, 그의 계획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 계획임을 증거가 됐다.

솔로몬 왕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듯하게 환영하며 초대하였다. 이 문장은 히람 왕이 다윗이 그의 하나님께 성실한 위대함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왕권이 증거가 된 것을 기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은 위대한 리더들로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고 그분을 따랐다.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 히람 왕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았고, 솔로몬 왕이 요구하기도 전에 솔로몬 왕을 돕는 것에 바르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히람 왕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신 솔로몬 왕에게 동맹국으로 친절하게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

2:6. 솔로몬 왕은 그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히람 왕에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암시하기 위하여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에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솔로몬 왕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히람 왕이나 그의 백성들이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다.

2:7. 솔로몬 왕은 이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의 드림 팀을 소집하고 있다. 솔로몬 왕은 벌써 그의 나라의 팀을 소집하였기에 그의 동맹국이 성전 건축의 노력에 유익한 재능과 자원을 모았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과 연합하여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을 더 효율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믿고 이해했다.

2:8-9. 솔로몬 왕은 매우 지혜로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 방면에 전문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았다. 솔로몬 왕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나라에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다른 왕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서 한 팀으로 같이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존경을 보였다 ""내 종들은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 말은 자신과 히람 왕이 동등한 왕이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같이 일함으로 동등함을 말한 것이다.

2:10. 솔로몬 왕은 이 위대한 일에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잘 돌보았다. 솔로몬 왕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훌륭한 식량을 준비해 주었다. 그들에게 무료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 왕은 그의 일꾼들을 친절하게 보살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 주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않아도 되셨지만, 우리에게 막대한 축복으로 하신 것처럼 왕국의 건축을 위하여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축복했다.

2:11-12.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감동되었다. 히람 왕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위대한 다윗 왕과 그분의 성전을 건축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임명하신 하나님을 확신했다.

히람 왕은 많은 이유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 왕의 열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으로 히람 왕과 동맹이었고,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축복을 받았고,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사용함으로 상급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에 여러 방법으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하늘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화합하여 일을 같이할 때 기뻐한다.

의미에 집중하기

예배는 일차원적이지 않다. 성전의 건축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중요하다. 둘 다 예배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건물 안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십일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의 열심에 히람 왕과 그의 백성을 초대하였다.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좋은 커뮤니티 형성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드러진다. 솔로몬은 과거에 아버지를 도왔던 히람 왕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들을 얻어냈다. 솔로몬 왕은 일하는 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제공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솔로몬 왕은 우월한 마음으로 그의 도시에서만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하였다.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우리들을 축복하신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모든 재능을 가질 수 없고, 예배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주님을 위하여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긍정적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가능하다면 디즈니 영화 백설 공주에 나오는 “Whistle While You Work”(일하며 휘파람 불며)의 비디오 장면을 준비하라. (www.youtube.com/watch?v=mlwa9sPFT51)을 반원들에게 보여주라.
2. 기도 후에 비디오를 보여주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반원들에게 백설 공주의 한 장면에 숲속에 동물들이 나와서 백설 공주를 도와서 난쟁이들의 더러워진 집을 같이 청소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한다. 모든 일은 모두가 같이 일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을 때 경영이 잘 된다는 것을 지적하라.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성경 공부로 들어가라. 그는 그일을 같이 할 도움이 없다면 한 사람이나 한 나라가 하기에 너무 큰 일임을 깨달았다.

성경 공부 가이드

4. 역대하 2 장 1 절과 2 절을 읽으라. 반원들에게 솔로몬이 거대한 건축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도록 인도하라.
5. 3 절과 4 절을 반원 중에 읽도록 하라. 왜 솔로몬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두로의 히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는지 질문하라. 사무엘하 5 장 11 절에 히람은 다윗 왕의 가까운 동맹이었고, 전에 이스라엘의 건축 계획 시에 중요한 도움을 준 것을 생각하게 하라.
6. 5 절과 6 절을 읽으라. 반원 중에 성전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를 설명하도록 하라. 왜 그는 히람을 이 계획에 포함했는가?
7. 다음 부분에 답을 기록할 자원자를 정하라. 한 사람이 7 절에서 9 절까지 읽도록 하고 서기관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적게 한다. 솔로몬의 계획에 성전 안에서

사용할 모든 다른 재료들을 나열하라.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할 이런 재료들의 목록이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산과 예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였나?

8. 솔로몬 시대에 왕들은 그들의 인구 중에서 관례로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히람 왕이 이런 계획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성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게 대우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원 중에 10 절을 읽고 히람이 이스라엘 건축을 돕기 위해서 보낸 일꾼들에게 풍부한 임금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토론하라.

9. 12 절에 히람이 보낸 편지를 읽으라. 반원들에게 히람이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도록 질문하라. 무엇이 히람으로 다윗의 가족과 왕국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받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나누도록 하라.

적용 격려

10. 반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11. 질문 2 번과 4 번을 서로가 토론하도록 인도하라.

이과를 마치면서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역할을 돌아보고 그들의 건강과 힘을 드리도록 격려하라. 기도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개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의 사역에 시간과 힘을 더욱 드리도록 기도하자.

[끝]

제 6 과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
핵심본문 역대하 3:1-17 배경 열상; 갈 2:7-9	학습주제 기둥들은 교회의 힘이다. 탐구 질문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둥으로 여겨지는가? 학습 목표 기둥 같은 사람은 전 교회의 몸을 힘있게 하는 사람임을 이해하기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이 본문은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 본문 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의 건축을 위한 계획을 받고, 성전 건축을 위해 다양한 일꾼을 채용하여 준비했다. 솔로몬은 성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 건축하기로 했다.

역대하 2 장은 주의 성전의 위엄을 세우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재료들의 복잡한 세부 사항과 성전의 측량이 제공되었다(본문은 “큐빗”이라는 고대의 측량 기준을 사용하였다. 1 큐빗은 17.4 - 20.4 인치이다). 열왕기 7 장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13 년이 걸렸고, 건물의 정교함을 나타냈다. 정교함의 주제는 기둥들의 모양에서 계속 나타났다. 기둥들은 건물을 물질적으로 받치는 것이지만 또한 기둥들은 신약에서 교회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은유한다.

본문 해석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다(역대하 3:1-14)

3:1-2. 솔로몬은 주의 집을 신성한 땅에 건축했다. 모리아 산은 주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소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풀에서 숫양을 제물로 공급하신 장소였다. 모리아 산은 또한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 왕이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했다.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한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한 이유는 그 장소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나게 만드는 경계표였기 때문이다. 이 장소에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의 꿈을 성취하고 모리아 산의 역사적인 특별함을 지키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진행을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4 년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가능한 팀을 소집해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을 해야 한다.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보통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여분의 시간과 준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3:3-7. 솔로몬 왕은 주의 집이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집이기를 소원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집은 그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엄청난 건축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집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실내 장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솔로몬은 성전을 귀중한 보석들과 가장 좋은 금과 사이프러스 나무로 장식했다. 하나님의 집 전체를 금으로 덮어서 씩웠다.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솔로몬 왕은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룹들은 성경 전체에 특별한 형태의 천사들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를 위한 성전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늘과 같은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의 장소에 걸맞는 천국 같은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했다.

3:8-9.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로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 가장 거룩한 장소는 안쪽의 성소로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믿었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전체의 성전 중에 가장 웅장한 장소라 했다. 솔로몬 왕은 가장 거룩한 장소를 600 달란트의 금으로 씩웠다. 2020 년 금액을 정하는 기관에서는 한 달란트의 금은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장소를 금으로 씩우는 금액으로 미국의

달러로 6 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아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먼저 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의 사랑과 감사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열심히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다.

3:10-14. 솔로몬 왕은 가장 거룩한 장소에 특별한 두 개의 그룹들이 세워진 것을 보았다. 그룹의 날개들은 30 피트 넓이로 펴지고, 모든 날개는 금으로 덮여졌다. 솔로몬 왕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상질의 리넨으로 만들어진 가리개는 그룹의 모양으로 새겨졌다. 이러한 일은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이런 일에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전의 기둥들(3:15-17)

3:15-17. 솔로몬 왕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놀라운 작업을 했지만, 성전의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둥들이었다. 기둥들은 하나님의 집을 붙들고 받드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둥들은 성전을 받드는 것뿐만 아니라 힘의 상징으로 세워졌다. 기둥들은 35 큐빅 높이로 대략 57 피트의 높이와 같다. 기둥들의 위에는 목걸이 같은 쇠사슬로 100 개의 석류로 장식하였고, 기둥들을 보아스와 야킨이라 불렀다. 이 기둥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기둥들로 섬겼다.

의미에 집중하기

교회의 기둥은 힘과 성실함을 나타낸다. 이번 본문과 같이 기둥들은 교회 맨 앞에서 높고 견고하게 선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둥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높고 견고하게 서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인가?

성전 건축 건물이 한 가지 아름다운 사실은 이 기둥들이 작은 의미에서 성전을 물질적으로 받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둥들을 성전 맨 앞에 둔 것은 천재적인 것으로 교회 앞에 힘과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 기둥들은 상식적으로 특별한 받침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가 되기 위하여 강하고 굳세게 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원하신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면 더욱 강해진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기에 있든지 없든지 스스로 설 수가 있지만, 이 기둥들이 특별한

받침으로 더해진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므로 결국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더 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특별한 받침으로 받쳐야 한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솔로몬 왕은 확실히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지만,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른 결정을 내렸다. 성전의 건축 계획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으로 시작했고,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꿈의 사명을 완수했다. 성전은 예배하기에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의 위엄과 성실하심과 영원한 능력을 증거가 됐다. 우리의 모든 힘과 재능과 에너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교회의 기둥들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하자! 우리가 한 가지 방법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크게 유익하게 하는 자원이 되자!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기도 후에 아래의 케이스를 자원자가 읽도록 한다.

- 24 살의 프레다는 매주 수요일 교회 어린이 합창단 프로그램에 다과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다. 그녀는 주중에 교재의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한다. 그녀는 매년 여름성경학교에서 일하고 매주 토요일에 교회 본당을 청소한다. 프레다는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갖겨주기를 원하지 않고 조용하게 섬기고 있다.
- 빌은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교회 잔디를 깎는다. 빌은 은퇴 후에 교회의 수리공으로 자원하였다. 만약에 자리나 배수관이나 유리창이 고장 나면 빌은 언제나 나타나서 고친다. 그는 모든 재료를 자비로 준비하고 그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랑한다.

- 데일은 40 년간 4 학년 남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주중에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준비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크리스천 친구들을 찾고 교회 안에 머물도록 편지를 썼다. 그의 많은 학생은 크리스천 사역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중에 몇 명은 선교사가 되었다.
2. 반원들이 아는 사람 중에 그들의 교회를 과시나 요구나 돌려받을 기대없이 계속 섬기는 사람을 아는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한다.
 3. 성경 공부로 돌아와서 오늘 공부는 크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집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은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자원자로 역대하 3 장 1 절에서 14 절까지 읽게하라. 반원들이 이 본문의 몇 개의 세부사항을 다시 생각하도록 질문한다(모리아 산에 건축함, 금으로 덮어씌우기. 등등....). 반원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들의 성전이 오늘날 건물에 비교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5. 15 절에서 17 절까지 읽으라. 성경 시대에는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 이것의 예를 창세기 35 장 14 절 15 절, 출애굽기 24 장 3 절-5 절, 그리고 사무엘하 18 장 18 절에서 들고 반원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기둥들이 세워졌는지 나누도록 한다. 15 절에서 17 절에 나오는 기둥들은 건물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기둥들의 특별한 기념과 성전의 출입구에 세워진 것은 사람들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나게 한 것을 토론하라. 반원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성실하심(십자가, 성찬식, 등등....)을 생각나게 만드는 상징을 생각하도록 한다.

적용 격려

6. 반원들에게 1 번 케이스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들의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원들이 설명하도록 한다. 그들이 큰 리더들과 같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1 번 케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둥들”이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기둥들이라 불렸던 이유는 그들의 삶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강하게 하는데 헌신하였기 때문이었고(갈 2:9), 디모데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딤후 3:15)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실함과 섬김의 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둥들이다. 그들은 교회를 지탱하고 크리스천 헌신의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7. 반원들에게 교회의 “기둥들”의 구분하는 특성들을 나열하게 하자. 칠판이나 큰 종이에 적도록 하자. 반원들에게 목록을 검점하도록 하고 그들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성이 그들에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인가?
8. 몇 분간 조용하게 묵상한 후에 반원들이 더 깊은 관계와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끝]

제 7 과	찬양이 하는 놀라운 일
핵심본문 역대하 5:1-14 배경 출: 40:34-38	학습주제 예배의 희생을 드리고 삶이 정화된 후에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마음이 움직이는 진실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신다. 탐구 질문 무엇이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가? 학습 목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 배우기.

성경 주해

배경이해

역대하 5 장은 솔로몬의 건물과 주의 성전의 가구로 꾸민 것을 나타낸다. 이 장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주의 성전 내부 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은 것을 설명한다. 오직 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에는 언약궤가 주의 성전 건물 안을 사용하기 전에 장막 곧 회막에 언약궤를 보관하였다. 지금은 언약궤가 그룹 동상의 날개 아래에 성소의 내부인 가장 거룩한 장소에 보관되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언약궤는 “상자” 또는 “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고 있다. 그것은 성막의 은혜 자리 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놓이는 궤였다. 이것을 고려할 때 성전 안에 언약궤를 놓기 전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그것 위에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본문 해석

성전이 완성되다(역대하 5:1)

5:1. 드디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한 생각이 몇 년을 걸쳐서 열매를 보게 되었다. 솔로몬의 사역은 마무리되고 주의 성전은 실체가 되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보물을 성전 안에 보관하였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자녀들은 다윗 왕과 전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었다. 다윗 왕은 주의 집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셨다. 다윗 왕이 생각이 가지고 그의 아들이 이 일을 하도록 준비하였고, 솔로몬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가장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가 주께 드린 보물들 성전 안으로 가져온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꿈을 상징적으로 이루고 일의 마무리가 잘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오다(5:2-14)

5:2. 지금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는 준비를 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런 중대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중요한 리더들을 소집하였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마치 가구를 옮기듯이 성전 안으로 옮길 수 없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표현하는 가장 만져서 알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요소였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과정은 경외하는 의식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다.

5:3-5. 이런 신성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헤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3-4).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던 회막과 회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이것은 예전 것을 버려 내보내고 새것을 취하여 들어오는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매우 중요했다. 대신 전에 언약궤가 있던 장소에 모든 것을 취하여

새로운 주의 성전으로 옮겼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그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도록 도왔다.

5:6.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새 성전을 통하여 그들의 예배보다 더욱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으로 예배했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본문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것이 우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아름다운 본이 된다. 희생의 동물들은 제물과 같아서 생존의 의미였고 양식의 의미였다. 그들은 제물을 인식한 마음이나 정해진 양을 드린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바탕에 근거하여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기에 우리의 찬양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감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든지 찬양의 노래를 드리든지 주께 기도를 드리든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든지 우리의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솔로몬 왕은 벌써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열심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성실하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렸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그들이 셀 수 없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5:7-9. 언약궤는 제사장에 의해서 지성소로 옮겨졌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성소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으로 만든 천사들의 날개가 덮은 모든 언약궤와 채를 천사들의 날개 밑에 두었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서 성전 밖에서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언약궤를 두는 새로운 집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가를 보여준다. 새로운 성전뿐 만 아니라 지성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언약궤를 두기에 합당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했다.

5:10. 언약궤 안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언약궤로 불려진 이유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나타내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었다.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실하심이 과거에 조상들에게 현재에 그들에게 앞으로 올 세대에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5:11-14. 이제 찬양과 예배의 체험을 진정으로 시작하려고 했다. 제사장은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지성소에서 나왔고, 레위의 찬양자들은 세마포로 옷을 입고 악기들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악기들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더욱이 120 명의 제사장은 악기를 연주하고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후에 주께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예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린 것은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 중의 찬양과 경배를 닮은 것이었다. 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하여 찬양한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완수하고 축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완공에 동참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찬양의 노래로 예배하는 것과 같이 너무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같이 사역한 후에 주님의 놀라운 시간이 그것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들의 강렬하고 진실한 찬양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집에 구름으로 가득했다. 나는 성전 안에 성령이 가득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며 악기를 크게 연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그렇게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고 춤을 추는 것을 상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나타나셨고, 그 방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5:14.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강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했기에 제사장들은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찬양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기에 제사장은 능히 섬길 수가 없었다. 오 주님!

당신은 교회의 예배 도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삶 속이나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분께서 그 장소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가? 당신은 교회의 예배 도중에 찬양과 경배가 너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설교자도 더이상 설교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더는 진행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얼마나 충만한 느낌인가! 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의 거대한 규모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작게 나게 잠시 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의미에 집중하기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당신의 찬양에서 나타날 것이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아버지의 꿈을 전에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었다. 다윗 왕이 죽은 지 몇 년이 흘렀고, 이 노력의 결실은 몇 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것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어디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할 때 그들 마음의 감격이 모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독립과 번영의 시간으로 끌어내셨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특히 이 일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강렬하게 찬양하도록 단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그 사역을 보고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 당신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그것을 처음으로 보고 그릇으로 사용 받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성실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다음 세대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실하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모든 찬양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찬양을 주께 드리며 그것이 유기적으로 일어난다. 참 경배와 찬양에 증거하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심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도록 하는 진정한 경험이다.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아멘.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기도 후에 반원들이 지난주에 크리스천 음악을 들었는지 질문하라. 그리고 반원들이 일주일에 크리스천 음악을 며칠이나 듣는지 질문하라. 반원들이 크리스천 음악의 가수나 그룹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라.
2. 크리스천 음악 사업이 매년 음악 앨범과 판매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 블로그 운영자는 전국에서 8 천 만 명의 시청자가 1,400 개의 크리스천/가스펠 음악 채널을 듣고

있다고 주장한다. 몇백 개의 교회들은 “찬양과 경배”의 음악을 그들의 예배 속에서 사용한다.

3. 히브리서 13 장 15 절을 읽으라. 반원에게 “경배”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경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임을 설명하라. 교사로서 학생을 어떻게 찬양(praise)하는지 예로 설명하라. “그리스, 나는 네가 다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기쁘다.”, “팀미, 넌 그 그림에 정성을 다 쏟았구나!”, “갈렙, 넌 정말 좋은 책을 골랐어!” 등등. 반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게 알리는 찬양의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라(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4. 성경 공부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헌정식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강렬한 찬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설명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5. 자원자로 역대하 5 장 1 절에서 14 절까지 읽게하라. 반원들이 성전을 헌정하기 전에 모든 준비에 대하여 듣게하라. 반원들에게 무엇을 들었는지 나누도록 격려하라.
6. 11 절에서 14 절까지 읽게하라. 제사장들의 노래가(“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의 어떤 종류의 들어가는가? 반원들에게 성경의 어떤 찬양의 요소들이 아직 오늘날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하라(악기, 찬양대, 찬양 등등).
7. 반원들로 성전 헌정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내려와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질문하라. 이런 경험이 그들의 삶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적용 격려

8. 현대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물질적인 명시가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예배에서 의미를 경험했던 시간을 나누도록 한다.
9. 요한복음 4 장 24 절을 읽으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라. 우리의 참된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오늘날 믿는 자의 찬양과 경배를 깊어지게 하는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하라.

반원들에게 1 번의 질문을 생각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분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라.

[끝]

제 8 과	이뤄지지 않은 꿈들의 복
핵심본문 역대하 6:1-11 배경 삼하: 7:1-16	학습주제 비전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탐구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아니면 꿈? 하나님 나라의 일? 학습 목표 나의 실망과 희생은 성공을 위한 대가의 꼬리표이다.

성경 주해

배경이해

역대하 6 장 1 절에서 11 절에서 성전이 헌정되는 날에 전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한 솔로몬의 연설을 기록했다. 이것은 기념적인 행사였다. 그의 연설에서 솔로몬은 더 큰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제시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셨는데 특히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실제로 이루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성전을 건설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자.

역대하 6 장 7 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7 장 1 절에서 16 절은 우리에게 전한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땅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통일되었고, 수도는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시로 가져와 성소 혹은 회막 안에 놓았다(삼하 6:17-19). 모든 것이 평안했다.

다윗은 그의 왕궁에 거하면서 그의 거주지와 언약궤가 거하는 회막을 비교해 보았다. 그는 왕이 거하는 장소보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합당함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다윗은 그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좋게 여기는 데로 행하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꿈에 내려왔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비전을 확인하시고,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실하시고 계속해서 성실하실 것을 확실하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큰 약속을 하셨다. 첫째,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시고, 다음의 후계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한 심오한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과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믿기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취하셨다.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 사람들은 기뻐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꿈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그는 이러한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윗은 아마도 실망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세워질 더 큰 약속의 말씀에 진실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실 건물의 건축을 눈으로 목격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이 같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능하게 하셨다(고전 3:16).

본문 해석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했다(6:1-2)

6:1.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을 감독하면서 구분한 물건을 정결하게 하고,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서 경계해야 할 사항을 주었다. 역대하 5 장 13 절과 14 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주의 임재 혹은 영광이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출애굽기 19 장 9 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내가 뽀뽀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인정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과 바르게 응답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6:2.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두 번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솔로몬은 지혜를 나타냈다. 성전은 물론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두 가지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되었다.

솔로몬은 성전이 장엄하다고 표현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587 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었다. 성전이 에스라 밑에서 다시 건축되어 많은 사람은

기뻐하였지만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집안의 가장들은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소리높여 울었다(스 3:10-13). 그들은 아마도 새로 지어진 성전이 처음 성전의 장엄함과 비교할 수 없는 실망감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다(학 2:2-9).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설명하다(6:3-9)

6:3-4.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축복함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지혜다.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 축복과 격려와 긍정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다. 솔로몬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확증했다.

성전은 주님의 입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손으로 건축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확증한 말씀이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들이다.

6:5. 출애굽기 19 장 3 절에서 6 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것은 오래전에 세우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장소나 왕의 혈통을 정하지 않으셨다. 이런 약속은 나중에 다윗에게 주신 것이다.

6:6. 출애굽기 20 장 24 절에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신명기 12 장 5 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하셨다. 역대상 17 장 23 절과 24 절에 다윗은 주께서 그의 가족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확증을 사무엘하 7 장 1 절에서 16 절에서 찾을 수 있다. 솔로몬은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고 이스라엘에 선포했다.

6:7-8.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꿈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사도행전 7 장 46 절 47 절에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주를 위한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꿈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증거하여 말하기를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좋게 여기셨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주신 후에 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 다윗은 이것에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찬양을 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포함된 것에 감사를 드렸다. 사무엘하 7 장 18 절과 19 절에 다윗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6:9. 무슨 이유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는가? 역대상 22 장 8 절에 주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평화중에 솔로몬의 통치 중에 성전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비전을 세우셨다(6:10-11)

6:10. 솔로몬은 보물로 여겨질 말씀을 언급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시고,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킨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성전의 헌정하는 날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성으로 이루시는 더 풍성한 이유가 있다(행 2:29-36).

6:11. 언약궤는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왕좌를 담고 있다. 언약궤가 성전에 놓일 때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표시였다. 역대상 22 장 19 절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언약궤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다윗의 명령을 귀하게 여겼다. 다윗의 비전은 솔로몬과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실체가 되었다,

의미에 집중하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실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이 받아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윗은 그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한 명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헌정할 때 그는 성전의 건축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사람들을 초대하여 같이 기뻐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맡기었다. 역대상 29 장 11 절과 12 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록되었다. 성전은 역시 위엄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위엄이 있으시다. 모든 힘과 권세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힘은 지칠 줄 모르고, 그분의 일이 놀랍다. 만약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이루신다.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기도한 후에 1960년대 위암 판정을 받은 켄터키주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라. 그녀의 남은 날은 정해져 있었고, 21 명의 손주를 위해 손수 이불을 만들어 주는 꿈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이불의 윗부분만 만들고 이불의 나머지는 그들이 결혼한 후에 완성하라고 부탁했다. 모든 손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이불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20년이 지난 후에 완성되었다.
2. 반원들에게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을 나누고, 그 꿈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 이루어졌는가 나누도록 인도하라.

3. 성경 공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꿈이 그의 죽음 후 몇 년이 지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믿음을 통해서 실체가 되었는지 설명하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반원 중 역대하 6 장 1 절에서 11 절까지 읽도록 하라. 반원들에게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사용했는지 듣도록 하라. 무슨 이유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연설을 몇 번 씩이나 포함을 시켰는지 질문하라. 다윗의 믿음이 성전 건축의 동기의 요소가 되었는지 토론하라.
5. 솔로몬이 9 절과 10 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토론하라. 사도행전 17 장 24 절과 고린도전서 6 장 19 절을 읽으라. 반원들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와 다른 점을 질문하라. 사무엘하 22 장 7 절을 읽고 다윗이 "성전"이라는 이 구절에서 단어를 사용했을 때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토론하라. 그의 "성전"에 대한 관점이 성전에 대한 현재 우리의 관점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의 관점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6. 반원들에게 솔로몬의 초점이 하나님이셨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나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적용 격려

7. 반원들에게 다윗의 꿈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그들의 단어로 설명하도록 격려하라. 반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졌는지 나누도록 질문하라.
8. 질문 2 번을 토의하도록 한다.

9. 어떤 장애물이 크리스천의 성장과 봉사의 목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지 나누도록 인도한다.

기도로 마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당신의 삶에 투명하게 나타나고, 주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끝]

제 9 과	부흥의 열쇠들
핵심본문 역대하 6:12-42 배경 롬 12:1-2	학습주제 솔로몬은 왕으로 제단에 온 것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탐구 질문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가? 학습 목표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성경 주해

배경이해

성경은 하나님과 활기찬 교제를 나눈 사람의 경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게 멀어져 갔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믿음을 보였지만 그들은 정도에서 벗어나 버렸다.

영적인 방향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흥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부르짖었다. 시편 85 편 6 절에서 7 절에 이런 기원이 기록되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기도이다. 시편 기자는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시편 29 장 2 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모범에서 보듯이 자주 리더들을 임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보여주신다. 우리가 경건한 리더들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오신다. 의로움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모든 멤버들에게 적용된다. 베드로전서 1 장 15 절과 16 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로마서 12 장 1 절과 2 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솔로몬의 헌신 기도에서 우리는 거룩함의 여러 가지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경건한 봉사에 견고한 헌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에 향하신 계획에 흔들리지 않는 것.

본문 해석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다(6:12-13)

6:12.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기도했다. 그는 회중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림으로 리더십을 보였다. 그는 회중들과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다. 솔로몬은 주를 구하며 자신의 열망같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손을 펴서” 열림과 받아들이м의 자세를 보였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절대로 은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6:13. 시편 95 편 6 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낫으로 만든 대 위에 서서 온 회중들 앞에서 하늘을 향하고 주께 간구를 드리며 자신의 전부(마음, 생각, 혼, 힘)를 드리는 것을 보고 들리도록 확실하게 했다.

솔로몬이 주를 찬양하다(6:14-15).

6:14. 출애굽기 8 장 10 절에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애굽을 개구리 재앙에서 건지시겠다고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신명기 7 장 9 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연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의 친밀감을 보여 주었다. 그는 자기 기도 생활의 엄청난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 지혜이다.

6:15. 솔로몬은 다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언급했다(역대상 22 장 10 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명하신 여러 가지 사건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우리의 확신은 증가하며, 우리의 영은 그분의 시간에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안식하고 격려받는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원하다(6:16-40)

6:16-17. 솔로몬의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윗에게 그의 자손의 왕좌를 약속하신 것을 그분을 위하여 지켜 주시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시 기억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용할 권한이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순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책임도 있다.

6:18. “초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구별되신다는 뜻이다. “내재”는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 모두 나타내신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에 놀라움이 있었다. 그는 또한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바른 일이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사실에 더욱더 놀라운 이유를 가지고 있다.

6:19-20.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눈이 성전에 언제나 향하시기를 간구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거처였다. 시편 34 편 15 절에 “여호와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신다.

6:21. “탄원”의 뜻은 “간구”와 “구걸”의 의미가 있다. 탄원은 강렬과 열심과 겸손으로 만들어진다.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는 그들을 대신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다.

신명기 12 장 11 절에 성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 가는 곳이라 말한다. 솔로몬이 그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의 회개의 필요성과 속죄와 회복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가르친다(히 10:5-10).

6:22-23. 솔로몬은 이웃 간에 다툼 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심판자로 서주시기를 구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무고한 자를 옹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그릇과 목소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6:24-25. 레위기 26 장 17 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은 전쟁의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셨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전쟁의 패배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반항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6:26-27. 가뭄은 죄의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레위기 26:18-20; 신명기 11:17; 28:24; 삼무엘하 1:21; 열왕기 17:1).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개로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중보했다.

6:28-31. 솔로몬은 계속해서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인 재앙을 설명한다. 그는 또한 사람들의 반응 방법을 설명한다: 기도와 탄원을 드리고, 성전을 행하여 손을 든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구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솔로몬은 백성이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잠 8:13; 9:10)하고 순종으로 걷기를 소망했다(미 6:8).

6:32-33. 사람들은 많은 다양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다. 한 가지 방법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도움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고 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에 주의하시고 그들도 복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름을 신뢰하기를 기도했다.

6:34-35. 전쟁은 이스라엘에 보편적인 경험이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전쟁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역대상 5 장 20 절에 이스라엘이 하갈 사람과 그들의 동맹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6:36-39. 솔로몬은 불순종과 가뭄과 재앙과 전쟁을 다뤘다. 그런 심판은 땅에서 경험할 것들이었다. 지금 솔로몬은 그보다 더 큰 재앙인 포로의 재앙을 다룬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진다는 것을 지혜롭게 알아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에서 옮겨서 고통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6:40. 솔로몬은 역대하 7 장 14 절에서 21 절에 나오는 청원을 다시 반복하여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요청하다(6:40-42)

6:41. 역대상 28 장 2 절에 다윗은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와 언약케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말했다. 시편 132 편 16 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말씀하셨다. 솔로몬은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다.

6:42.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성실하게 남아 주실 것을 간구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3-4).

의미에 집중하기

베드로 전서 2 장 9 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인 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각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침례교 교제에서 우리는 각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초대를 받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형상을 닮고,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념으로 인도를 받았다. 각 사람은 그들의 은사와 재능과 따라서 리더십을 행하면서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본다.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리더였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원하므로 리더의 모범을 보였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에게 성실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 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때에라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 시켜 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흥 시켜 주시기를 간구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구하고 있는가? 솔로몬의 모범을 따라가라. 당신의 삶을 거룩함에 헌신하라.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당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당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성경 공부 반이 시작되기 전에 영화나 쇼 프로그램의 출연진이나 작가들을 칭찬한 여러 개의 평가를 모아서 준비하라.
2. 기도를 마친 후에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높게 칭찬하는 공연을(연극, 영화, 등등) 소개하라. 당신이 준비가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복사하여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원자가 읽게 시키라. 평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좋은 단어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하라.
3. 성경 공부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의 헌정 기도에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 기초를 놓은 솔로몬의 기도의 깊이와 믿음과 느낌을 반원들과 같이 조사해 보자!

성경 공부 가이드

4. 역대하 6 장 12 절과 13 절을 읽으라. 솔로몬이 단을 준비하여 높이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라. 무릎을 꿇은 행동이 어떻게 겸손을 나타내는 태도인가?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의 행동을 그의 믿음의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5. 반원들로 역대하 6 장 14 절에서 42 절을 읽게하라. 본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찾아보고 나누도록 한다(“하나님과 같은 분이”, “언약을 지키시며”,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반원들이 찾은 것을 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종이에 쓰도록 한다.
6. 반원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보고, 솔로몬이 그의 기도 속에 포함시킨 다른 제목을(찬양, 고백, 은혜의 청원,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 등등). 모든 답을 칠판에 기록하라.

적용 격려

7. 반원들에게 “일차원적인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라.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가끔 반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얕지는 않은지 토론하도록 한다.
8.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보라. 솔로몬이 기도에 사용한 단어나 문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나누도록 한다.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단어나 문장들을 사용하여 기도하는지 질문하라.
9. 솔로몬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 안에 들어간 주제들에 대하여 서로 나누어 보라. 그는 현재의 상황만을 포함시키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포함한 것을 기억하라. 칠판에 적힌 모든 목록을 반원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기도에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토의하도록 한다.

반원들을 2-3 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과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친다. [끝]

제 10 과	불붙은 교회
핵심본문 역대하 7:1-10 배경 히 12:25-29	학습주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시작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불이 붙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 탐구 질문 나는 부흥을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는가? 학습 목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치를 가져오는 것을 이해하기

성경 주해

배경이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와 행하심은 불로 특별하게 규정되었다. 창세기 15 장 1 절에서 21 절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다. 출애굽기 3 장 1 절에서 22 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으로 나타내셨다. 출애굽기 24 장 17 절에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모여 율법을 받을 때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신약에서 우리는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누가복음 3 장 16 절에 침례 요한은 그를 듣는 자들에게 메시야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행전 2 장 1 절에서 12 절에 성령께서 초대 제자들 위에 내려와 “혀의 불”로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 성령은 그들을 능력으로 입혀서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불로 나타내신 것일까? 생각해 보라. 불은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철을 정화하고, 찌끼를 태우고, 귀한 물건들을 정화한다. 그것은 물건을 하나로 만들고 철을 강하게 한다. 그것은 빛과 따듯함과 생명을 준다. 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힌다. 그것은 가까운 성소에서 임재를 나타낸다. 그것은 보호하며 위협을 사라지게 만든다.

불은 하나님의 성령 움직임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부흥과 연결된다. 히브리서 12 장 28 절과 29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성령은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교회에 “불 이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다. 성령은 새로운 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자리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 새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기도는 강렬하다. 예배는 겸손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다. 사람들은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선을 받는다. 관대함은 넘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한다.

우리는 더는 이 세상의 것들을 열망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골 3:1-17).

본문 해석

하늘의 불 (7:1-3)

7:1.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솔로몬을 인정하는 신호를 보내시고, 그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셨다. 이것은 다른 곳에 말씀 속에서도 일어났다. 레위기 9 장 24 절에 모세와 아론은 성소 밖에서 재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불로 재물들을 태우셨다. 열왕기상 18 장 20 절에서 40 절에 하나님의 불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중에 엘리야의 재물을 불로 태우셨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1 장 26 절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부를 짓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재물을 불로 태우셨다.

7:2.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사람들과 정결하게 구별하였다(구별 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구분하다.). 출애굽기 29 장 1 절에서 46 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제사장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성소 밖에서 매일 제물을 드리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출애굽기 40 장 35 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역대하 7 장 1 절에서 10 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히 4:14-16).

7:3 절. 하나님의 임재에 바른 반응은 예배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고 존경과 겸손과 두려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했다. 사람들은 역대상 16 장 34 절을 암기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언약궤 앞에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시했다.

백성이 응답하다(7:4-7).

7:4-5. 솔로몬과 백성들은 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응답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 깜짝 놀라게 하는 양을 보라: 22,000 마리의 소와 120,000 마리의 양과 염소. 이것은 거대한 재산을 보여준다. 바베큐의 냄새를 예루살렘 전체와 근방의 지방에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축제를 즐겼다. 이런 차고 넘치는 관대함이 참 부흥의 표시였다. 리더들을 포함한 전체 커뮤니티는 그들이 소유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모든 사람은 즐거워했고, 모두가 참여하였다. 관대함은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한다. 거기에는 연합이 있다.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관대함을 나타내는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과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는가?

7:6. 제물은 음악과 함께 했다. 역대상 15 장 16 절에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음악가들을 임명하여 거문고와 하프와 심벌즈와 함께 즐거운 음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선포했다.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요한일서 4 장 10 절에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둔 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축하할 많은 이유를 주셨다(요 3:16).

7:7. 사람들의 제물은 제단 용량의 공간을 초월해 버렸다. 우리는 다시 솔로몬이 리더로서 그의 백성과 함께 솔로몬의 큰 반응을 보았다.

백성들이 하나 되다(7:8-10).

7:8. 누가 축제에 참여했는가? 손님들의 목록은 하맛에서 온 사람들과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창세기 15 장 18 절에서 21 절과 민수기 34 장 1 절에서 12 절에 이 장소들이 약속의 땅의 지역적인 연장선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자들은 이스라엘 약속의 국경선 안에 있던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그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했다.

이날의 특별함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을 모으신다. 솔로몬과 사람들의 리더들은 성전 낙성식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의도가 있었다. 그들은 족장들이 포함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했다. 그들은 연합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신했다.

솔로몬의 축제는 레위기 23 장 33 절에서 43 절 안에 설명한 성전의 축제를 위하여 진행한 것을 따라 했다. 성전의 낙성식은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축제의 요소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같이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과거를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

7:9. 레위기 23 장 36 절에 주님은 성막절에 관하여 모세에게 지시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칠 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 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같이 솔로몬은 소송 절차도 담았다.

7:10.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역대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받는 자들로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 사람들이 리더들을 기뻐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즐거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시다.

의미에 집중하기

당신의 회중이 부흥의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당신은 증인이 된다. 좋은 청지기가 되고 만약에 회중이 다른 크리스천을 격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거가 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 당신의

교회는 전에 당신이 구하거나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아마도 불은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번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당신이 전에 보지 못한 구원의 좋은 소식이 다른 장소들에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라.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흥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부흥이 당신의 마음을 휘젓고, 당신의 교제 안에서 휘젓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범을 보이고, 예수님과 성실하게 걸어가도록 부르고 계시다. 이사야 55 장 6 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 장 13 절 약속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다. 부흥은 당신이나 당신의 반이나 당신의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당신의 온 마음으로 찾으라.

열왕기상 18 장 20 절에서 40 절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유명한 대결을 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이 그들의 제물에 불을 내려 주기를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오직 주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았다. 엘리야는 제단을 준비하였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같은 유형을 역대하 7 장 1 절에서 10 절에서 볼 수 있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다. 그들은 주님을 구했다. 그들은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나타나셨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연합했고, 축하했다. 그들은 불에 사로잡혔다.

당신의 마음에 제단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불이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정화하시고, 당신을 의로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은 화합으로 반응하며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구원을 선포하라.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반이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개업식에 여러 장의 꽃장식의 사진을 준비하라.

(Google Images 또는 florist websites 에서 찾으라.)

2. 기도를 마친 후 비즈니스 개업식과 연관된 것을 반원들이 나열하면서 시작하라(추첨 선물, 쿠폰, 음식, 사회자 등등...). 꽃장식 사진들을 보여주면 그것의 가격을 마쳐 보도록 하라. 반원들에게 이것과 비슷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라.
3. 성경 공부로 돌아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행사인 성소의 헌정과 성전의 헌정을 적어두라.

성경 공부 가이드

4. 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의 자원자가 민수기 7 장 1 절에서 3 절, 84 절에서 89 절을 읽고 성소 낙성식에 가져온 제물들의 수를 듣고 기록하도록 한다. 다른 그룹 중에 한 사람은 역대하 7 장 4 절에서 7 절을 읽고, 반원들은 성전 낙성식에 가져온 제물들의 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두 그룹이 반원에게 그들의 숫자를 보고하도록 한다. 두 행사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
5. 이런 헌정식에 아낌없는 제물들을 드린 그들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자극했는지 토론하라. 그들 태도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반원들에게 오늘날 교회 멤버들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동기는 무엇인지 질문하라.
6. 역대하 7 장 1 절에서 3 절을 읽으라. 반원들이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불과 구름이 내리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표현하도록 도우라(놀람, 두려움, 존경, 예배 등등.).
7. “정결하게 구별하다”의 의미를 토론하도록 한다. 반원들에게 성경 속에서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한 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라(예: 모세가 제사장들과 모든 가구를 정결하게 구별했다; 믿는자들이 주님께 아기들을 헌아한다. 등등...).

적용 격려

8. 현대의 크리스천이 이스라엘이 성전 낙성식 중에 경험한 존경과 두려움과 같은 수준에서 느끼지,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반응이 많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라.
9. 기도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사람들은 허용하라. 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헌신의 불과 영적인 열심의 불을 다시 붙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도록 격려하라.

[끝]

제 11 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핵심본문 역대하 7:11-22 배경 롬 12:1-12	학습주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건적인 관계를 즐거워한다. “만일 네 백성이.. 그리하면 내가 하리라.” 탐구 질문 나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가? 학습 목표 가장 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

성경 주해

배경이해

역대하 3 장과 4 장은 고백과 희생과 헌신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솔로몬 성전 건물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와 그의 용서를 생각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건물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육감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역대하 5 장에 성전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나게 만들도록 역사적인 거룩한 물건들과 함께 가구로 갖추어져 있다. 언약궤(십계명을 담고 있는)는 전에 회막 안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기구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여놓았다. 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애굽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가구가 제자리에 놓인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5:11-14).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게 거하실 고상하게 건축한 하나님의 집을 설명했다(6:1-11).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성취할 허락을 받은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대함 때문에 지상의 어떤

건물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는 확신했다(6:18). 솔로몬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6:28-33).

솔로몬의 헌신의 기도 후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다시 한번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10,000 이상의 제물을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드렸다(7:1-10).

공중의 행사들 뒤에 주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조건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만약에 나의 백성이 이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조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이다.

본문 해석

끝과 시작(7:11-12)

7:11.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일들 곧 기구와 필요한 도구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모두 완성되었다. 이런 건축 계획은 20 년 후에 마무리되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7 년 걸렸고(열상 6:1, 솔로몬 통치 4 년에 시작하여 11 년에 끝마쳤다. 열상 6:38), 솔로몬 왕궁의 건축은 13 년이 걸렸다(열상 7:1-12).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을 그대로 했다.

7:12. 모든 축제를 마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것은 약 24 년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왕으로 임명하셨다(역하 1:3-13). 당시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혈통과 명예까지도 주셨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이 그분을 발견하고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공부의 나머지 부분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다(7:12-22).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6:12-40).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고 거기서 드러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분의 귀가 열려 있으며 성전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셨다고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7:13)

7:13 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다른 제목을 계속해서 주신다. 내가 만일 비를 멈춘다거나, 메뚜기가 농작물을 삼키거나, 나의 백성에게 재앙을 보낸다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에 주는 재앙이라고 하신다. 그것은 경고 알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헌신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알리는 것이다.

첫 단계는 당신이 바른길에 있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이다. 경계가 오면 돌아서라 .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돌아오다(7:14a).

7:14a.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구해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 안에서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기적으로 구해야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출 6:7; 레 26:12; 렘 31:33). 보편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고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의 이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특성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이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쁨 부름을 받은 자이다.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요 3:16; 요일 3:1-2; 갈 3:16,23,29).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크리스천의 단어는 그리스도의 축소판의 형태로 그의 이름과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작은 형상이란 뜻이다. 그것은 크리스천인 우리의 책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유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임재 안에서 사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사람의 그룹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인생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우리의 일은 스스로 겸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

둘째, 기도하라. 당신을 하나님께 열어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들으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옮기시도록 그분을 허락하라. 통찰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진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당신의 눈을 들어 그의 웃음과 사랑을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신다. 당신은 그분을 보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들으신다. 당신은 그분에게 듣는가? 힘과 에너지와 우선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와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 악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론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땅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신다(7:14-16)

7:14b. 그러면...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상황도 회복하신다. 우리가 지상에서 네 갈래의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로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성취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의 상황에서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구약에서 용서하는 것은 사면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용서의 뜻은 당신의 죄에서 풀어주는 뜻이고 선창에서 배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활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7:15-16.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그분을 찾도록 약속하시고, 예배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는 성전에서 드린 제물을 좋게 보신다. 그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구별하셔서 그의 이름과 그의 성품과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거기에 항상 계신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과 지킴의 결과(7:17-22)

7:17-18. 하나님과 솔로몬의 조건적인 약속은: 만약에 네가(솔로몬) 나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면 나는 너의 보좌를 세울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항상 보좌에 있을 것이다.

7:19-22.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 나의 가르침과 계명을 무시한다면 나는 나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고, 성전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에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이런 파멸을 스스로 가 왔다.

의미에 집중하기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관계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개인적인 관계는 최소한 두 사람이 관여하는데 남편과 아내이든 부모와 자녀이든 직장 동료이든 하나님과 관계를 포함한다.

좋은 관계는 각 사람이 자기의 역할에 관여하여 그 관계에 공헌하는 관계이다. 좋은 관계는 계속 검증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공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강조한다.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쩍 찌려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정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 졌을 때 우리의 삶은 찢어지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초기의 경고 표시로 우리에게 겸손 하라고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빛나간 부분이 어디인지 구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연합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라도 멀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상황을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약속은 양쪽이다. 우리의 헌신을 드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부분을 하실 것이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룹 속에서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영성과 관계에 유일한 소망이시다.

역대하 7 장 14 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낯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이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 a. 성경 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나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 b.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역대하 저자의 메시지를 다루어 읽는 자나 듣는 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성경 공부 가이드

2. 반원들이 도착하면 그들에게 “성결하게 구별하다”의 문구에 집중하도록 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에 대하여 읽을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새로운 교회 강단이나 청소년 교육관 건물이나 주일학교 어린이 건물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행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하여 토론할 것이다.
3. 옆에 있는 다른 반원과 건물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다른 점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서로가 나눔의 시간을 가진 후에 대화의 모임에 합류하여 건물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의 차이점을 나누라.
4. 언약의 생각 범주에서 주님과 우리와 관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나누어 보자. “언약”의 뜻은 두 당사자가 합당한 경계 안에서 서로가 바르게 행동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4 명의 그룹으로 만들어 요한복음 3 장 16 절에

집중하자. 이 구절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나누어 보자.

5. 하나님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의 희생제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동시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 모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은 토론을 나눌 수가 있다.
6. 그룹의 각 사람에게 언약의 각 부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하라.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특징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역대하 7 장 14 절에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구하며”의 아이디어를 얻었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알았다. 4 명이나 5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오는 것과 다른 점을 토의하도록 한다. 질문하라: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 한가지 그것들의 다른 점에 대한 초점은 “존재”와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의 외부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존재”가 “행동의 증거”로 우리가 구원자에게 속한 증거가 나타난다.

적용 격려

8. 반원들에게 오늘 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잠깐 멈추고 생각하도록 한다. 반원 중에 그들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나누도록 격려하자.

나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자.[끝]

제 12 과	어려운 질문들
핵심본문 역대하 9:1-12 배경 베전 2:4-12	학습주제 시바 여왕은 모든 것을 가졌다; 부유, 권력, 명성, 재물.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하여 왔다. 탐구 질문 나는 예배할 때 나의 전부를 드리는가? 학습 목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산 돌임을 깨닫기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솔로몬은 기원전 970 년부터 930 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능력의 사람이었다. 그의 지혜의 자료들은 방대해서 3,000 개의 구언의 잠언과 1,005 개의 노래(열상 4:32)와 그의 창조적인 일을 반영하는 성경의 세 권의 책(잠언, 아가서, 전도서)을 남겼다.

그의 지혜는 그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을 강화하고 전략과 경제적인 노력으로 확장했다. 그는 국경 방어를 든든하게 했고, 군대의 능력을 확장했고, 배를 만들어 수출과 수입을 했고, 유력한 동업자인 두로의 히람과 시바의 여왕과 그 지역의 무역 협약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항구들과 두로의 배들과 그들의 재목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의 많은 동맹은 이스라엘에 그 지역의 주요한 무역 길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실질적인 지혜, 국제적인 무역, 거래, 거래 성사, 상질 장인의 기능과 장인의 솜씨와 더불어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 솔로몬의 장점이었다.

시바는 스바(시편 72:10,15; 사 60:6; 렘 6:20)의 땅으로 오늘날의 예멘 지역이다. 스바는 무역인과 상인으로 솔로몬 시대에 예멘과 아프리카에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바다와 육지로 무역을 한 인도와 무역 동료이기도 했다.

오늘 본문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던진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최고였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을 파헤칠 것이다. 이 방문은 지혜를 향한 여왕의 방문이었지만 시바와 솔로몬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무역의 동료 관계를 세우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자면 시바의 호기심은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밝히는 것이다. 모든 지혜의 탐구는 모든 지혜의 하나님으로 인도한다.

본문 해석

최상을 위한 탐구(9:1-2)

9:1. 솔로몬과 시바는 모두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시바는 세상 최고의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솔로몬과 대화했다는 사실은 그녀 자신이 꽤 인상적인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 주며, 그들이 나눈 대화는 생기와 강도가 있었고, 그녀는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였다.

그녀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 말을 번역한 “어려운 질문들”은 우리의 말로 수수께끼이다. 지혜는 정보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통찰력, 이해, 추상적 사고, 문제 해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9:2.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을 쉽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가져온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유창하고 지혜롭게 말했다.

최상에서 온 증거(9:3-8)

9:3-4. 시바의 여왕은 그의 지혜와 능력과 업적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숨어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탐구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이 주제는 그녀의 관찰을 통해 전해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각각 신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드러냈다는 것은 9:5-8 이 되어서야 드러난다. 솔로몬이 말하고 행한 것이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가르키고 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 그는 모든 주제의 달인이었고, 실용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했다. 그러한 깊이와 숨결, 그러한 진실과 실용주의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최상이신 하나님을 가리켰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도움이 되는 신성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녀는 또한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품질과 재료들과 가치와 숨씨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지혜는 우리가 짓는 것과 사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녀는 전에 보지 못했던 식탁에 놓인 다른 음식과 질을 보았다(열상 4:22-25). 다시 지혜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신하들의 자리 숫자와 능률과 현명한 자리 배치에 대해 놀랐다. 그녀는 솔로몬을 도운 자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지혜를 보았다.

그녀는 거기에 참석하는 웨이터와 술 따르는 사람들의 예복을 보고 알아차렸다. 섬기는 자가 예복을 입는 것은 모순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왕궁에는 섬기는 자조차 상질의 리넨의 옷을 입는 곳이었다. 섬기는 자들 모두가 예복을 가졌는지 또한 예복은 상질의 것인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여왕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

9 장 4 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번역되었다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런 층계가 장식으로 꾸며지고 덮여진 것은 왕이 그의 주거자들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곳이었다. 여왕은 솔로몬 왕의 행렬과 그의 왕궁의 엄청난 층계를 보고 매우 놀랐다.

최상에 대한 시바의 평가(9:5-8).

9:5-6. 그녀가 솔로몬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결론은 내가 들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들은 것은 내가 본 것에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본 지혜가 모든 기대를 초월했다.

9:7-8. 그녀의 지각으로 강조한 것을 보라. 신적인 지혜는 관찰하는 자들이 사람의 위대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을 통해서 지혜를 듣는 백성들과 관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당신의 주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는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의 보좌에 왕으로 앉으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당신 지혜의 이유이시고, 그는 당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 그분은 왕이시고 당신은 그를 섬기는 자이다. 시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는 사회를 유지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왕은 보좌에 계신 왕 중에 왕(하나님)을 보았고,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사랑하시고 관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치자들을 세워서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동료와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기(9:9-12)

9:9-11. 여왕은 그녀가 가져온 진귀한 선물들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120 달란트의 금은 대략 4.5t의 엄청난 금이다. 그녀는 솔로몬이 벌써 가지고 있는 금과 보석들을 주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인도와 아프리카 같은 먼 나라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향품을 주었다.

여왕은 그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무역의 동료 관계를 맺으려고 왔다. 여기서 선물들은 개인적인 선물이기보다는 조공에 가까운 선물이다. 그녀는 잠언 18장 16절에 기록한 솔로몬의 말을 이행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바퀴에 기름칠하는 것과 같고 동료 상호 간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여왕과 솔로몬은 서로에게 선물을 나눔으로 무역의 거래를 완성했다.

9:12. 솔로몬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가 그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헌신은 대가를... 그녀는 4.5t의 금과 다른 귀중한 선물과 함께 위험하고 긴 여행을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 그녀는 솔로몬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이 위험을 감수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분의 사역에 유익하게 드리자.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의미에 집중하기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를 받아 창조적인 솜씨와 최상의 상질의 재료를 결합하여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건축의 선물을 드렸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장엄한 건물들을 보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지만, 그것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의심 많은 탐구자로 왔지만 솔로몬의 하나님께 감탄하게 되었다. 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모든 지혜와 가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다.

솔로몬의 성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킨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착과 함께 성전의 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고, 새로운 성전은 세계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해졌다.

신약에서 성전은 벽돌이나 돌들이 아니라 당신과 나로 모든 나라와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살아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치른 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이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서 살아있는 성전의 기초가 되셨다. 당신과 나는 살아있는 돌들로 그 기초 위에 세워졌고(고전 3:11,16; 베전 2:4-5),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요 14:23).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가 연결되어 그분의 교회로 우리의 삶과 찬양과 봉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설계와 창조적인 솜씨를 본다(엡 2:10).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실체를 보았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엡 2:10),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여왕이 백단목에서 향기를 맡았듯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남겨야 한다(고후 2:14-16).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1. 이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 a. 성경 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나 이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 b.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역대하 저자의 메시지를 다루어 읽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2. 칠판이나 하얀 종이 위에 이런 말을 적어 놓으라: "각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창조물로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 만족하게 할 수 있다."(파스칼).

성경 공부 가이드

3. 반원들이 도착하면 역대하 9 장 1 절에서 12 절까지 읽도록 한다. 반원들에게 삶의 의미의 원천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떻게 부적절한지 토론하라.
4. 서로가 토론한 것을 그룹들과 몇 분 동안 나누도록 하고, 그들의 문장에 대한 후속 질문을 준비하라.
5. 오늘 우리가 볼 두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로 그들의 행동과 동기가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원들에게 말하라.
6. 반원들에게 3~5 명의 그룹을 만들어 시바 여왕이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나누게 하라. 그들이 역대하 9 장 1 절에서 4 절과 역대하 9 장 5 절에서 8 절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각 그룹들이 시바 여왕이 가져온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여러 그룹에 그들이 나눈 토론을 발표하도록 격려한다. 시바 여왕은 그녀의 인생에서 놓친 것을 발견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가? 6 절에서 8 절을 제시하라.

적용 격려

7. 마무리하면서 그룹에게 베드로전서 2 장 12 절과 베드로전서 3 장 15 절을 찾도록 한다. 반원들이 이 두 곳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토론하도록 한다. 그들을 비교할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을 때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반원들에게 칠판 위에 파스칼의 명언에 주목하도록 한다.
8. 반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의미를 당신에게 주셨는지 공개적으로 나누도록 격려하라.

반원 중에 마무리 기도를 부탁한다.

[끝]

제 13 과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핵심본문 역대하 9:13-31-23 배경 열왕기상 11:1-13	학습 주제 지혜와 부귀와 권세는 우리의 죽음의 때를 대비하거나 막아 줄 수 없다. 탐구 질문 많은 물질적 소유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 하는가? 학습 목표 경건함 없이 장엄함을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다.

성경 주해

배경 이해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와 매우 다른 시대에 살았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매우 달랐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역대상 28:2, 6).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역대하 1:2-3, 6). 축제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물으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을 요청하였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유한한 재산, 소유물, 명예, 장수, 적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대신 지혜와 지식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부와 재산, 명예와 영광 등 세 가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는 그의 전대 왕이나 후대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다(역대하 1:11-12).

역대하 9 장은 솔로몬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 이 역대기자는 솔로몬의 결점을 간과하지 않는다(일부는 왕상

11:1-13 에 기술되어 있음); 기자는 그 대신에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솔로몬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자질과 죄악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솔로몬은 결국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많은 아내를 얻었다. 그의 말년에, 이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왕상 11:9-13).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운명에 있다. 우리가 땅에서 천국으로 죽음을 거쳐 들어갈 때, 우리는 지혜, 부, 권력, 명성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고린도전서 1:21-24; 2:6-9),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광과 명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11-12, 19-22; 디도서 3:4-7). 오늘 공부에서는 솔로몬의 재산과 명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그의 이 땅에서의 결말을 본다.

본문해석

솔로몬의 부와 명성 (역대하 9:13-22)

9:13-14. 솔로몬은 매년 총수입으로 666 달란트의 금을 받았다. 한 달란트는 무게가 약 75 파운드였다는 것을 계산하면 그는 일년에 약 25 톤의 금을 받았던 것이다.

이 금 수치에는 다른 나라에 판매 된 상품으로 인한 기타 수입과 솔로몬이 유지, 보호, 통제하는 무역로에서 상품을 운송할 때 징수 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아라비아의 왕들과 총독들(바빌론, 앗시리아, 페르시아의 지역들과 관련된 용어)이 솔로몬에게 준 모든 금과 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9:15. 솔로몬의 금속공들은 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각각 15 파운드의 금이 포함된 방패 2 백 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각각 7.5 파운드의 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300 개의 더 작은 패를 만들었다. 이 방패들은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고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전시되었다. 방패를 전시하는 것은 금을 빨리 녹여야 할 경우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손님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9:16. 레바논의 숲 궁전은 창고와 무기고로 사용되던 건축물로, 궁전의 주거지와 성전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삼나무 숲(왕사 7:2-5)을 닮은 삼나무가 3 열로 되어 있어 각 열은 15 개의 삼나무 기둥이 있었다 (총 45 개의 삼나무). 이 건물 안에는 또한 공식적인 만찬을 위한 순금 잔들과 그릇,

그리고 숲의 궁궐(9:20)을 위한 가구들이 있었다. 이 방은 스바 여왕의 숨을 멎게 했던 것 중 하나 일 것이다 (9 : 3)

9:17-19. 솔로몬 왕은 법을 집행할 장엄한 왕의 보좌를 가지고 있었다. (참조, 왕상 10:18-20). 그 왕좌는 6 개의 오르막 계단이 있는 연단에 있었다. 그것은 금과 상아로 덮여 있었다. 상아는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왔다.

각 계단은 양쪽 끝에 황금 사자가 지키고 있었는데, 따라서 총 12 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이 12 마리의 사자들은 아마도 이 시기에 아직 통일된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12 개 부족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참조, 창세기 49:9). 가장 위에 있었던 사자는 왕좌의 팔걸이의 양쪽에 서 있었다. 그 왕좌에는 황금 발받침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좌였다.

9:20-21. 모든 잔들과 궁전의 물품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솔로몬은 페니키아 선원들이 운행하는 타시스(Tarshish) 배(약 120 피트 길이의 배)라고 불리는 장거리 무역선을 가지고 있었다. 매 3 년마다 그들은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먼 곳으로 항해했고, 금, 은, 상아, 원숭이, 개코 원숭이 또는 공작새와 향신료와 같은 다른 물품들을 싣고 돌아왔다. 모든 나라가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9:22.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관하여,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 땅의 다른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압도적이었다고 결론 짓는다.

솔로몬의 명성과 권세 (역대하 9:23-28)

솔로몬의 명성과 권세는 9 장 전체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러 갔다 (9:1).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본 후, 그녀는 그의 실제 지혜가 그에 대해 들은 모든 소문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궁전과 다른 건물들도 경이로웠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다. 스바인들은 유명한 세계 여행가들이자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기하고 이국적인 것을 많이 보았으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고(9:5-8), 솔로몬이 이룬 그런 업적들은 그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9:7-8).

9:23-24. 온 땅에서 온 왕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를 귀담아 들을 청중이 되기를 원하였다. 솔로몬이 배를 보내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게 하니, 그 곳들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방문할 때마다 금과 은과 무기, 향료와 예복과 노새와 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선물이 더 많이 들어왔다.

솔로몬의 명성은 단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해마다 이 왕들과 지도자들이 왔다. (9:24) 그의 상인들과 배들이 새로운 왕국을 접할 때마다, 그 왕국의 지도자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은 솔로몬의 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가 지은 것의 아름다움에 아주 잘 녹아들어서, 디자인, 아름다움, 재료, 그리고 솜씨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9:5-8)를 가리켰다.

9:25-28. 솔로몬의 힘과 명성 중 일부는 무역, 조약, 국가 안보에서 현명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에서 얻어졌다. 말과 병거는 그가 획득하고 활용한 주요 소유물 중 하나였다. 병거는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였다.

솔로몬은 병거와 그 병거를 끄는 12,000 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4000 개의 병마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상인들은 이집트와 터키에서 많은 말들을 샀고, 일부는 선물로도 (9:24) 받았다. 병거의 보유와 배치는 적극적인 방어였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병거의 대부분을 주둔시킨 3 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병거 성 (9:25) 이라고 불렸다. 열왕기상 9 장 15 절은 하술, 므깃도, 게셀을 요새가 취약한 무역로를 지키는 요새화된 도시로 확인해주고 있다. 교역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했다. 이 도시들은 군대가 빠르게 분산될 수 있는 세 개의 병거 도시였으며, 병거 중 일부는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솔로몬은 전쟁과 군사 정복 대신 무역과 무역 거래를 통해 왕국을 확장했다. 많은 왕국들과의 동맹 관계는 바로의 딸과의 결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결혼으로 굳어졌는데, 서로 "가족"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약속된 땅'에 관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창 15:18)을 이루셨다. 그는 이집트 국경까지 (9:26)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다스렸다. 그것은 블레셋 땅에서 대강(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경계까지 뻗쳐 나갔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바위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흔한 무화과 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의 최후

9:30-31. 이것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왕실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형식이다. 이는 다음을 포함했다: 왕의 이름, 왕이 다스린 곳, 왕이 다스린 기간, 왕이 묻힌 곳, 누가 후계자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상들과 함께 쉬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다. 솔로몬은 사십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서, 하나님께 함께 있기 위해 돌아갔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북쪽 왕국(이스라엘)과 남쪽 왕국(유다)으로 나뉘었다.

핵심 의미

솔로몬은 그의 시대의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더 많은 지혜와 부와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놀라운 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선순위가 균형을 잃었고, 그의 헌신과 사랑은 나뉘었다. 죽음이 찾아왔고 그의 존재는 끝이 났다.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지었고, 천상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궁전을 지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어느 것도 서 있지 않다. 무엇이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당신은 영원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모든 계란을 이 땅의 바구니에 담고 있는가? 솔로몬은 나라를 세워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그가 현장을 떠난 후 그의 업적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들은 모두 떠났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우리도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축복자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선물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복들 우리처럼 시들고 죽는다. 솔로몬이 위대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한 분을 우리 각자가 만날 수 있다 (누가복음 11:31).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구하는가? (마 6:33) 만약 그렇다면, 그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인생의 총결산으로서 역대기 기자는 무엇이라고 기록할까?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가?

때때로 우리는 이것 저것들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예수님은 인생은 소유물이나 명예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들며 사다리에 오르기 전에, 그 사다리가 무너질 운명에 놓여있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선물 (은사)을 주신다.

Bibliography

Barnes, W. E. *The Books of Chronicles, with Maps Notes and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168–169.

- Benzinger, Immanuel and Hirsch, Emil G. "PALACE: House of Forest of Lebanon, climbing enclosed steps to Hall of judgement." Article in the *Jewish Encyclopedia*: <http://www.jewishencyclopedia.com/articles/11856-palace>.
- Boda, M. J.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1-2 Chronicles*. Vol. 5.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10), 283.
- Botta, Alejandro. *2 Chronicle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 Beverly Roberts Gaventa and David Peterse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0).
- Butler, T. C. *Luke* Vol. 3.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416–419.
- Evans, C. A. *Luk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0), 349-353.
- Elwell, W. A., & Beitzel, B. J. "Solomon (Person)." In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2.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8), 1975.
- Elwell, W. A., & Beitzel, B. J. "Sheba (Place)." In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2.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8), 1939-1940.
- Farrar, F. W.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With Maps, Notes and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1), 41.
- Jamieson, R.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Joshua–Esther*. Vol. II. (London; Glasgow: William Collins, Sons & Company, Limited), 523.
- Keil, C. F., & Delitzsch, F.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3. (Peabody, MA: Hendrickson, 1996), 602.
- Lange, J. P., Schaff, P., Zöckler, O., & Murphy, J. G.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1 & 2 Chronicles*.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08), 186.
- Lange, J. P., & van Oosterzee, J. J.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Luke*. P. Schaff & C. C. Starbuck, Trans.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08), 390-396.
- Liefeld, W. L. "Luke." In F. 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Mark, Luke*. Vol. 8.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4), 1051-1054.
- Leithart, P. J. *1 & 2 King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6), 80.
- Martin, J. A. "Luke." In J. F. Walvoord & R. B. Zuck (Ed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An Exposition of the Scriptures*. Vol. 2. (Wheaton, IL: Victor Books, 1985), 263-264.
- Payne, J. B. "1, 2 Chronicles." In F. 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 & 2 Kings, 1 & 2 Chronicles, Ezra, Nehemiah, Esther, Job*. Vol. 4.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464.
- Radmacher, E. D., Allen, R. B., & House, H. W. *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Nashville, TN: T. Nelson Publishers, 1999), 542-543.

Selman, M. J. “2 Chronic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In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General Editor: Donald J. Wiseman. Vol. 11.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366-368.

Utey, R. J.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3A, Lk 24:13–27). (Marshall, TX: Bible Lessons International, 2004).

Wolfendale, J. “I & II Chronicles” in the *Preacher’s Homelic Commentary*. (New York; London; Toronto: Funk & Wagnalls Company, 1892).

Christian Standard Study Bible. (Nashville, TN: Holman Bible Publishers, 2017), various study note insights.

NIV Zondervan Study Bible. General Editor: D. A. Cars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5).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 a. 보통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각 반원을 위해 기도하라.
- b.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역대기와 열왕기상의 기자들이 청취자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자.
- c. 그리고 이 수업을 위한 "수업 계획"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수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 d. 메모 종이와 펜을 각 반원에게 제공하자. 그 메모 종이를 모든 반원의 의자에 놓아라. 펜을 준비되어 있도록 하자.

성경 공부 인도

- 1. 반원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 제공된 종이에 솔로몬에 대해 알고있는 것들을 나열하도록 권유한다. 몇 분 후에 그들이 알고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하라, *오늘 솔로몬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바라건대, 토론이 하나님께 지혜와 이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자. 하나님 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라자.
- 2. 모든 반원들이 공부를 위해 오늘 본문을 펴도록 요청하라 — 역대하 9:13-31. 3-4 명씩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해당 구절을 읽고, 읽은 내용에서 발견한 통찰력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라.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몇 가지 통찰력을 공유할 준비를 하라. 몇 분 후에 그들이 토론한 내용에 대한 나누도록 요청하라. 각 그룹이 응답할 시간을 준다.
- 3. 전체 그룹에 대해 이 질문을하고 대답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수 년간 솔로몬에 대해 들은 것, 혹은 알고있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어떻습니까?* 반원들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지혜와 이해력을 요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고위 인사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잘 대표했습니다. 기타 등등.

4. 이제 각 그룹에 성경 열왕기상 11:1-13 을 펴도록 요청하라. 한 사람에게 1 절부터 8 까지 읽도록 요청하라. 읽은 내용에 대한 반원들의 생각을 요청하라. 반원들에게 솔로몬을 비판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주님께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길에 머물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되도록 상기시킨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한 교수는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 했어야 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배운 것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는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 해왔는지 토론하게 한다. 그들이 공유 할 수있는 몇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예배 시간을 갖기 위해 충실한다. 2) 공동 예배에 충실히 참여한다. 3) 물질의 청지기 생활에 충실하다. 4) 그들의 믿음을 나눈다. 기타 등등. 토론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열왕기상 11:9-13 을 읽도록 권유하라. 반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상태에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 주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몇 구절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끝나버릴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적용 격려

6. 반원들에게 주님과 함께 잠시 묵상할 것을 요청하라. 미리 나눠준 메모종이에 그들이 이번 주에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열거하게 하라. 그들이 다음 주 내내 그 것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다음에 만날 때 그에 대한 나눔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다.
7. 반원 중 한 사람이 기도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초청하라.

[끝]

부활절	다시 길 위에서
핵심본문 누가복음 24:13-15 배경 마가복음 16:12-14	학습 주제 당신이 절망의 길을 여행할 때,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하십니다. 탐구 질문 나의 눈은 떠졌나요? 학습 목표 예수님은 손님으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겠지만, 당신 삶의 주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성경주해

배경 이해

우리 모두는 부서진 꿈으로 인해 낙담하는 것을 경험했다. 한동안의 혼란과 상실감에 시달리다가, 우리는 결국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며, 종종 의심과 혼란, 그리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된다.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슬픔 과정은 혼란스러운 경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에 잠긴 두 사람이 집으로 가는 슬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하면서 그들의 삶은 갑자기 반전되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가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활동이 신적 계시를 통해 인식된다는 것인데, 그것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원어인 그리스어 '계시'는 커튼이 열리고 그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닫힌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관객들을 묘사하는 연극 용어이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 뒤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메시아 사람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는 누가복음에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눅 1:17-18, 28-29, 31-34, 38, 2:8-20, 25-35, 42-50, 9:45, 18:34, 24:16, 30-32). 오늘 우리는 그런 사건 하나를 공부할 것이다.

"필요했다"는 누가복음의 키워드이자 주제이다 (참조, 눅 2:49, 4:43, 13:16, 33, 15:32, 18:1, 19:9, 21:9, 37, 24:7, 44, 24:27-27, 44)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왔고, 그 중 많은 것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 중 일부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 곁을 지나가며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함께 여행한다. 누가복음 9:51-19:44 에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고통받고 죽으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부활하셔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삶의 길을 다니신다.

본문 해석

예수님은 우리 곁을 걸으신다 (24:13-18)

24:13.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의 추종자 두 명이 7 마일 여행인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그네들은 유월절 내내 예루살렘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신, 체포, 재판, 십자가에 못박히신 일과 더 이상 그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보고를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혼란스럽고 지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24:14.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토론했다. 여기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는 단어는 "서로 주고 받아 던지며" 라는 의미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다.

24:15. 토론 중에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합류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일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거나, 나아가기 위해 희망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24:16-17.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수동태 동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음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모든 성경이 어떻게 그를 가리키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무슨 의논을 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은 말을 멈추고, 가만히 섰다.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뭇개진 희망이 전달되었다.

24:18. 글로바는 그 사람이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일어난 모든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시하신다 (24:19-27)

24:19-20. 그 사람이 '무슨 일이오?' 하고 물으니, 두 제자는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치셨던 것에 근거해서 그 분이 누구신지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쏟아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대언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선생님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인계되어 십자가에 못박혔는지를 설명했다.

한글 성경에는 "...이거늘" 로 번역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은 과거형 "was" 로 잘 표현했다. 이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들의 희망도 하나님과 함께 사라졌다.

24:21. 백성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라고 바랐다. '구속'은 노예 신분의 사람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것이 그들이 슬프고 절망적인 이유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였으나, 지금은 죽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는 이미 죽은 지 3 일째였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은 3 일 후에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르쳤다.

24:22-24.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무덤을 찾아갔던 몇몇 여자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서 나타났던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제자들이 그 보고를 확인했다. 무덤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비어 있었다.

22:25-26. 이때, 그분은 예언자들이 이전에 성경에서 말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훈계하였다.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은 전통을 믿음에 대한 그들의 권위로 삼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건설한 것과 같은 지리적 왕국을 재건하는, 물리적, 정치적 구원자가 될 메시아를 기대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과 이해의 끝에 도달하고 나서야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린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보들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어리석다고 하셨다. 그들은 어리석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고난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9:26) 그것은 메시아가 고통받고 죽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신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다.

깊은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명확성을 위해 그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을 가리키셨다. 주님은 우릴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22:27.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작은 구절이다. 즉, 예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성경을 두루 거치시고, 자기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성경이 그분에 관한 진실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은 아마 이 사건들과 성경들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 일을 성취하는 것과는 연관시키지 않았었다. 그 날 뒤에, 그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길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구체적인 예를 분명히 들려주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마도 많은 신약신학과 초기 교회 설교 내용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참조, 사도행전 2:30; 3:19, 24; 10:43; 26:6-7, 22; 로마서 1:2-4; 고린도전서 10:4; 갈라디아서 3:16, 25-29; 디모데전서 3:16; 히브리서 1:112; 베드로전서 1:18-19).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먹이신다 (24:28-32)

24:28-29. 여정이 끝날 무렵, 성경을 설명하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신 예수께서는 떠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 사람에게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셨고, 이제 그들은 육적인 양식으로 그를 먹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이제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기울여 앉으셨다. (그 탁자들은 낮아서, 사람들이 식탁 옆에 앉거나 한 쪽으로 기울여 앉았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객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바꾸셨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자주 그랬듯이, 네 가지 단계를 따랐다. 그는 빵 덩어리를 손에 들고, 축복을 빌며, 빵을 떼어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24:31.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니, 나그네들의 눈이 순식간에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내내 예수님이였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모든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정말로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이제 그들은 결국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해했다!

24:32. 그들은 그분이 모든 성경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여 주셨을 때, 놀라서 얼마나 마음이 불타올랐는지를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24:33-35)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날이 저물어가는 늦은 시간에도 그들은 일어나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 7마일의 여행을 했다. 그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때에 나그네들은 그 분이 길에서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과, 빵을 나누어 주셨을 때 어떻게 그 분을 알아보았는지를 증거하였다. 확실히,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 몇 가지를 공유했다. 기쁨, 흥분, 희망, 새로운 가능성, 기도와 찬양의 긴 밤이었다.

의미에 집중하기

우리 모두는 의심, 낙담, 혼란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절망에 빠져 엠마오 마을로 터덜 터덜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간을 들이셔서 제자들이 대화하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도우셨다.

누가복음 9:51 - 19:44 의 내용 대부분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다. 그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일상적인 일 가운데 길 위에서 가르쳤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여행에서 배우는 것은 목적지만큼 중요하다. 그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경의 진리로 인도하신다. 혼란을 없애고, 명확성과 이해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겪고 있는지,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심지어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 안될 때에도 다른 신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때때로 도움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나그네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들은 같은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며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다.

Bibliography

Barnes, W. E. *The Books of Chronicles, with Maps Notes and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168–169.

Benzinger, Immanuel and Hirsch, Emil G. “PALACE: House of Forest of Lebanon, climbing enclosed steps to Hall of judgement.” Article in the *Jewish Encyclopedia*:
<http://www.jewishencyclopedia.com/articles/11856-palace>.

Boda, M. J.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1-2 Chronicles*. Vol. 5.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2010), 283.

Botta, Alejandro. *2 Chronicle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ed. Beverly Roberts Gaventa and David Peterse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0).

Butler, T. C. *Luke* Vol. 3.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416–419.

Evans, C. A. *Luk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0), 349-353.

Elwell, W. A., & Beitzel, B. J. “Solomon (Person).” In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2.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8), 1975.

- Elwell, W. A., & Beitzel, B. J. "Sheba (Place)." In *Baker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2.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8), 1939-1940.
- Farrar, F. W. *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With Maps, Notes and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1), 41.
- Jamieson, R.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Joshua–Esther*. Vol. II. (London; Glasgow: William Collins, Sons & Company, Limited), 523.
- Keil, C. F., & Delitzsch, F.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3. (Peabody, MA: Hendrickson, 1996), 602.
- Lange, J. P., Schaff, P., Zöckler, O., & Murphy, J. G.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1 & 2 Chronicles*.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08), 186.
- Lange, J. P., & van Oosterzee, J. J.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Luke*. P. Schaff & C. C. Starbuck, Trans.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2008), 390-396.
- Liefeld, W. L. "Luke." In F. 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Mark, Luke*. Vol. 8.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4), 1051-1054.
- Leithart, P. J. *1 & 2 King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6), 80.
- Martin, J. A. "Luke." In J. F. Walvoord & R. B. Zuck (Ed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An Exposition of the Scriptures*. Vol. 2. (Wheaton, IL: Victor Books, 1985), 263-264.
- Payne, J. B. "1, 2 Chronicles." In F. 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 & 2 Kings, 1 & 2 Chronicles, Ezra, Nehemiah, Esther, Job*. Vol. 4.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464.
- Radmacher, E. D., Allen, R. B., & House, H. W. *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Nashville, TN: T. Nelson Publishers, 1999), 542-543.
- Selman, M. J. "2 Chronicle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In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General Editor: Donald J. Wiseman. Vol. 11.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366-368.
- Uttley, R. J.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Vol. 3A, Lk 24:13–27). (Marshall, TX: Bible Lessons International, 2004).
- Wolfendale, J. "I & II Chronicles" in the *Preacher's Homelic Commentary*. (New York; London; Toronto: Funk & Wagnalls Company, 1892).
- Christian Standard Study Bible*. (Nashville, TN: Holman Bible Publishers, 2017), various study note insights.
- NIV Zondervan Study Bible*. General Editor: D. A. Cars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5).

수업 계획

삶과의 연결

- a. 보통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각 반원을 위해 기도하라.
- b.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누가 당시의 독자나 청취자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하라.
- c. 이어서 이 수업을 위한 "수업 계획"을 읽어보면서, 교사가 이 수업시간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각 계획의 일부를 강의에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학급의 가르침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 d. 학습 가이드에서 C.S.의 "말과 소년" 요약본을 인쇄해서 나누어 준다. 오늘 본문 전체를 (누가복음 24:13-35) 읽어줄 사람을 미리 요청해놓는다.
- e. 칠판이나 큰 종이에 시편 43 장 5 절 말씀을 써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공부 인도

- 1. 반원들이 교실로 들어올 때, 시편 43:5 이 인쇄 된 칠판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묵상하도록 격려하자. 그 구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하기 위해 옆 사람을 찾아 보라고 한다. 그들 사이에 토론 할 수있는 시간을 주라. 반원들 몇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배운 것으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 2. 기도로 그룹을 인도하라. 모든 사람에게 학습 공과의 C.S. 루이스 이야기를 읽도록 요청하라. 반원을 3 ~ 4 명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 요약에 대한 느낌을 토론하도록

초대한다. 몇 분 후 학습 공과의 자료를 사용하여 당신이 그들과 나눈 내용에 대해 토론하게 하라.

3. 미리 부탁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24:13-35 를 읽도록 하라. 반원들이 자신의 성경이나 학습 공과를 따라 읽도록 격려하자. 대표자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반원들은 그들 자신의 좌절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듣도록 하라. 그 모든 것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 읽기가 끝나면 같은 그룹끼리 이 구절에서 얻은 통찰력에 대해 토론하도록 요청하라.
4. 반원들에게 낙담과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예수님 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룹들에게 토론하도록 요청하자. 그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할 시간이 있으면 각 그룹의 토론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요청하라.

적용 격려

5. "배움의 마지막 단계는 적용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반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자.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자. 성령께서 이번 주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돕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신이 될 것이다.
6. 반원 중 한 사람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요청하자.